

의암 주논개 탄신 422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논개의 생애와 충절 정신



- 일시 : 1996년 11월 15일 (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 장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군민회관 2층 강당

주 최 : 장 수 문 화 원
주 후 원 : 장 수 군

義巖 朱論介 誕辰 422周年 紀念 學術세미나

논개(論介)의 생애(生涯)와 충절 정신(忠節精神)

- 일시 : 1996년 11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 장소 : 전북 장수군 장수리 장수군민회관 2층 강당

주최 : 장 수 문 화 원
후원 : 장 수 군

目 次

■ 학술세미나 일정

■ 개회사 / 장수문화원장 김진영

■ 축사 / 장수군수 김상두

■ 축사 / 장수군의회의장 홍순목

■ 발표논문

논개 출생에 대한 소고

고두영(시인, 장수문학회장) 11

문헌에 나타난 논개

오병무(순천대학교 교수) 17

시문에 나타난 논개의 생애

박기정(시조시인, 한문학자) 35

논개의 전설에 대한 구비문학적 이해

임채용(순천대학교 교수) 49

논개의 가계

최병운(전북대학교 교수) 61

학술세미나 일정

총지휘 : 이 강 오(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사 회 : 백 남 혁(전북도민일보 주필)

개회사 : 김 진 영(장수문화원장)

오후 1:00-1:10

축 사 : 김 상 두(장수군수)

1:10-1:20

축 사 : 홍 순 목(장수군의회 의장)

1:20-1:30

휴 식

1:30-1:40

주제 및 발표자

논개의 출생에 관하여 : 고 두 영(시인, 장수문학회장)

1:40-2:00

논개의 가계 : 최 병 운(전북대학교 교수)

2:00-2:20

문헌에 나타난 논개 : 오 병 무(순천대학교 교수)

2:20-2:40

시가 문학에 나타난 논개 : 박 기 정(시조시인, 한문학자)

2:40-3:00

구비 문학에 나타난 논개 : 임 채 용(순천대학교 교수)

3:00-3:20

토 론

3:20-5:00

이 강 오(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황 인 덕(충남대학교 교수)

양 숙 향(전남대학교 강사)

박 종 수(호남대학교 강사, 시인)

김 진 영(장수문화원 원장)

개회사(開會辭)

오늘 장수문화원(長水文化院)에서 개최(開催)하는 학술(學術) 세미나는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의 생애(生涯)와 충절 정신(忠節精神)에 대한 학술 회의로서 우리 고장 장수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묻혀져 있거나 잊혀져 있던 우리 고장 ‘장수 삼절(長水三節)’의 주벽(主壁)이신 주의암(朱義巖)의 사적(事跡)을 발굴하여 재조명(再照明)해 보고 새롭게 정립(定立)코자 하는 것이 이번 학술 회의를 개최하는 의의(意義)입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 회의를 통하여 우리 장수인의 자존심(自尊心)과 자긍심(自矜心)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비록 미약(微弱)하드래도 그 나중은 심(甚)히 창대(蒼大)한 님의 자취를 기리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이번 학술 회의에 논문(論文)의 발표(發表)와 토론(討論)에 참가해 주신 교수(教授)님 그리고 본 학술 세미나를 준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전북향토문화연구회(全北鄉土文化研究會) 이강오(李康五) 회장님과 오병무(吳炳武) 교수님, 그리고 사회(司會)를 맡아주신 전북도민일보사(全北道民日報社) 백남혁(白南赫) 주필(主筆)님께 깊은 감사(感謝)를 드리며 특히 이번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기까지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지원(支援)해주신 김상두(金祥斗) 군수(郡守)님과 장수군의회(長水郡議會) 홍순목(洪淳睦)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급 기관 단체장님과 내빈(來賓) 및 군민(郡民)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문화인(文化人)이요, 그러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사회는 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기를 오랫동안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지(人知)가 발달하고 물질 문명(物質文明)이 정신 문화(精神文化)를 앞지르면서 가치 체계(價值體系)가 전도(顛倒)되어 가치관(價值觀)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最近)에 이르러 인륜도덕회복운동(人倫道德回復運動), 신·인본주의운동(新人本主義運動), 뿌리찾기 운동 등 많은 분야에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도 우리의 뿌리를 찾아 그것을 잘 가꾸어서 무성한 잎새와 알찬 열매를 잘 영글게 하려는 노력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주의암의 사적은, 순국(殉國)하신 거사지(舉事地)가 진주(晉州)이기 때문에 님이 순절(殉節)하신지 29년이 지난 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순무사(巡撫使)와 삼도순안어사(三道巡按御使)를 지낸 류몽인(柳夢寅)께서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충절(忠節)의 숭고(崇高)한 죽음을 기록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지고지순(至高至順)의 순절을 기록했으나 생장(生長)에 관해서는 200여년이 지난 1,800년에 간행(刊行)된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에 님의 고향이 장수라는 것과 최경회(崔慶會) 현감(縣監)과의 관계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 정주석(鄭胄錫) 현감이 세운 ‘생장향수명비(生長鄉豎名碑)’가 유일한 유적(遺蹟)입니다.

8.15 광복(光復) 후 1955년 의암사(義巖祠) 건립과 생장지를 중심으로 한 《고로상전(古老相傳) 200년》이라는 구전 설화(口傳說話) 등을 집약해서 의암주논개의 사적 정립에 많은 진전이 있어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학술 세미나가 의암 사적 정립에 기폭제(起爆劑)가 되리라 확심하며 또한 온 국민이 주의암을 바로 알고 숭앙(崇仰)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 11. 15.

장수문화원장 김진영

축 사

친애(親愛)하는 군민(郡民)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機關) 사회(社會)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빈(內外賓)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의 상징적(象徴的) 인물(人物)이시며 한민족(韓民族)의 영원한 충절(忠節)의 여인상(女人像)이신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님의 생애(生涯)와 충절 정신(忠節精神)에 관한 학술(學術)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학사 일정(學事日程)에도 본 사업(事業)에 지대(至大)한 관심(關心)을 가지고 이번 학술 세미나 준비를 해주신 이 고장 출신 오병무(吳炳武)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關係者)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암 주논개님께서서 조선(朝鮮) 선조조(宣祖朝) 25년 서기 1592년 우리 나라가 왜적(倭賊)의 침입(侵入)으로 위기(危機)에 처했을 때 오직 애국 충정(愛國衷情)의 일념(一念)으로 꽃다운 젊음을 나라에 바쳐 조국 수호(守護)의 신(神)으로 산화(散華)하심으로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긍지(矜持)와 애국 정신을 길이 남겨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주논개님에 대한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이 제대로 정립(定立)되지 않은 채 왜곡(歪曲)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주논개님에 대한 대소 기록이 20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칭호(稱號) 역시 기생(妓生)·관비(官婢)·의기(義妓)·양가규수(良家閨秀) 등이 있으나 이는 의거(義擧)의 현장(現場)이었던 진주(晉州)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실이 오늘 학술 세미나를 통하여 충분히 밝혀지리라 확신

합니다. 때늦은 감(感)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논개님의 출생(出生)·가계(家系) 등에 관하여 각종 문헌(文獻)과 시가 문학(詩歌文學)·구비 문학(口碑文學) 등을 분석한 내용들을 총정리(總整理) 한권의 책자로 묶어 논문집(論文集)을 간행할 것입니다. 한편 주논개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각종 문헌의 기록들을 한데 모아 《논개실기(論介實記)》라는 이름으로 묶어 내년 초에 간행코자 합니다. 그리하여 주논개에 관한 한 장수군민은 물론 이거니와 온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관(歷史觀)을 인식(認識)토록 할 것이며 또한 우리 후손(後孫)들에게도 논개에 관한 역사 사실을 올바르게 전해 주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학술 세미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장수문화원(長水文化院) 김진영(金鎭永) 원장님과 임직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특히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교수 여러분께 재삼 고마운 뜻을 드리면서 축사(祝辭)를 가름합니다.

1996. 11. 15.

장수군수 김 상 두

축 사

존경하는 김진영 문화원장님!

그리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국화 향기 그윽한 오늘 우리 나라의 저명한 석학을 모시고 『논개의 생애와 충절정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처음으로 갖게 되어 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논개님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란의 시기에 열아홉 꽃다운 젊은 나이임에도 그 소중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나라를 구함으로써 살신성인의 고귀한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만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아 각종 이설이 난무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평가마저도 달라 장수군민 뿐만 아니라 논개님을 흠모하고 있는 모든 군민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동안 논개님의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위해 각종 언론에 협조를 구하고 뜻 있는 인사들이 문헌을 수집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가와 민족의 수호신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제전 행사 또한 역사의 현장인 진주시와 출생·성장지인 우리 장수군으로 양분되어 거국적 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로 향락 풍조에 젖어 도덕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사랑과 봉사 그리고 희생 정신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세대에 있어서 논개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 정립은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 의암 주논개님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 평가와 가치 정립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논개사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어 주기를 기대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구국일념으로 살신성인을 몸소 실행해 주신 주논개님의 정신이 우리 나라의 위대한 여인상으로 승화 발전되어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세세년년 정신적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 입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새로운 역사적 가치 창출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더욱 발전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 11. 15.

장수군의회 의장 홍 순 목

발 표 논 문

- 논개 출생에 대한 소고(고두영) 11
- 문헌에 나타난 논개(오병무) 17
- 시문에 나타난 논개의 생애(박기정) 35
- 논개의 전설에 대한 구비문학적 이해(임채용) .. 49
- 논개의 가계(최병운) 61

논개(論介) 출생(出生)에 대한 소고(遡考)

高 斗 永
(詩人, 長水文學會長)

1. 주논개(朱論介) 순국(殉國)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

우리 나라가 겪은 외침(外侵)에 의한 국난(國難)

주외침국(主外侵國) - 한족(漢族), 일본(日本), 몽고(蒙古), 러시아족

원인(原因) -

| | | |
|---|--------------------------|---|
| [| 지정학적 입장 - 대륙(大陸)과의 교량 위치 |] |
| | 국론분열, 국력 쇠약 | |

임진왜란(壬辰倭亂) - 전후(前後) 7년간 외침에 국난 극심

진주성 대첩 - 임진란 3대 대첩의 하나

논개(論介)와 임진란 - 사녀단(士女團)을 조직, 진주성(晉州城) 싸움 가담

성함락 - 최경회 순국

나라와 남편의 원수 갚기 위하여

왜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꺾이고

남강(南江) 투신 순국(投身殉國)

논개 순국의 역사적 평가

임진란에 대한 민·군·관의 사기(士氣)를 고무(鼓舞)시킴

왜군 침략의 기세를 꺾음

호남 침입을 막게된 동기가 됨

2. 각 문헌상(文獻上)에 나타난 논개(論介)의 출생(出生)

논개 순국 후 진주(晉州) 현지(現地)의 기록

어우야담(於于野談)(1594) - 어우(於于) 류몽인(柳夢寅) 채록
‘논개는 진주의 관기(官妓)였다.’

의암기(義巖記)(陽谷集, 1651) - 양곡(陽谷) 오두인(吳斗寅) 채록
‘진주 관기 논개’

의암비기(義巖碑記)(1694) - 명암 정식(鄭枳)이 채록
어우야담을 인용 비문을 짓고
그 바위 홀로 섰고
그 여자 우뚝 섰네
여자가 이 바위 아니면
어찌 죽을 곳을 찾았으리
바위가 이 여자 아니면
어찌 의로운 소리 들을소냐
한 강의 외로운 바위가
만고에 꽃다운 이름 얻었네

의기전(義妓傳)(1712) - 서계(西溪) 박태무(朴泰茂)
논개를 입전(立傳)한 유일한 작품
‘관기를 의기(義妓)로 채록함’

진주의기사기(晉州義妓祠記)(1836) - 다산 정약용(丁若鏞)
의기(義妓)로 적고 그녀의 의로운
사건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기술

그 밖에 동화(東話)·계산담수(溪山談藪)·동국쇄담(東國瑣談)
아동기문(我東奇聞)·청구야담(靑邱野談) 등이 있음.
한결같이 어우야담(於于野談)에 근거를 두고 ‘관기’
‘의기(義妓)’로 적고 있으며 출생지·출생·생애 등은
한 곳도 기록된 곳이 없다.

3. 향토지상(鄕土誌上)에 나타난 논개의 출생

논개의 거사(擧事) 순국은 기생(妓生)만이 가능할 수 있는 적진 속에 진주(晉州)에 간지 며칠만에 단독(單獨) 결심 결행이었으므로 그 이전의 가계·출생·출생지·생애 등 신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출생지가 장수(長水)라고 최초로 기록된 문헌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1800)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1839)

장수읍지(長水邑誌)(1872)

위 3편의 기록은 공히 ‘논개는 장수인(長水人)이다.’라고 처음으로 장수 출생지만 들어나 있다.

이어서 발간(發刊)된

명문(名門)의 고향(1970) — 전북매일신문사 간

삼절(三節)의 고장(1982) — 장수군 간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1983) — 전북애향운동본부 간

장수군지(長水郡誌)(1990) — 장수군 간

상기 4편의 기록에서는 한결같이 그동안 이 고장에서 전하여 내려온 구전 사실과 각 문헌을 근거로 한

논개의 가계·부모·신분·출생지·생년월일

작명(作名)의 동기·최경회(崔慶會) 현감과의 관계

생애·거사 순국 등이 체계를 이루어 기록됨

이어서

논개사적연구(論介事蹟研究)(1996) —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편

에서는 출생지 호남 지방에서 논개에 대한
가계·부모·신분·출생지·생년월일·작명 동기
최경희 현감과의 관계 등의 사적을 진주에서
거사 순국의 사적(事蹟)과 접목시키어 논개에
대한 일대기(一代記) 사적(事蹟)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4. 금석문(金石文)에 새겨진 논개의 출생

금석문에 새겨진 것도 출생지 장수(長水)쪽보다 거사지(舉事地) 진주(晉州)
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다.

진주에 금석문 3기가 있는데 최초의 금석문은

‘의암(義巖)’ - 논개가 왜장을 껴안고 순국한 그 바위에
32년 뒤(1625) 진주 사민의 뜻에 따라
정대용(鄭大隆)이 전자체(篆字體)로 새긴
논개의 순국 사실을 요약한 금석문이다.

그리고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에 세워진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이다.

위 2기의 금석문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알리는 주요한 사적비이다. 그러나
그 밖의 출생에 대한 아무 것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의기사(義妓祠) 정원에 세워진

‘의랑(義娘) 논개(論介)의 비(碑)’(1954) - 창열회 세움
논개의 출생지가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 주촌이라
써 있고 성씨는 주씨(朱氏)라 기록되었으나 출생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출생지 장수 쪽에 금석문이 5기가 서 있는데 최초로 세워진 것은

‘축석의기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生長鄉豎名碑)(1846) — 정주석 세움
이 비석은 논개가 장수 출생이라는 최초로 출생지를
확인하고 논개의 거룩한 순국을 높이 찬양했다.
이 비석은 일제(日帝) 때에 숭한 수난을 당함.

이어서 출생지인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마을 생가(生家)에 세워져 있
는 4기의 금석문으로 처음 마을 입구에 세워졌던

‘의암논개랑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1960) —
장수교육감 김상근 세우고 장천인 이재순 글씀.
이 비문이 논개에 대한 가계·출생지·출생 마을·
주촌(朱村) 마을의 유래·생년월일·그에 따른
작명(作名)·최경희 현감과의 관계·진주성 싸움에
가담한 동기·성이 함락된 처절한 상황·기생으로
가장 승전연에 들어가 왜장을 껴안고 순국한 일대기
(一代記)를 맨처음 정립시킨 효시의 금석문이다.

이어서 생가(生家)가 복원되기 전 생가터를 보존하기 위하여 세워진

‘의암주논개유허비’(1982) — 장수군수 박청준 세움
‘주논개생가사적비’(1987) — 장수군수 하광선 세움
‘의암신안주씨논개지여(義巖新安朱氏論介之閭)’(1996) —
장수군수 김상두 세움

위 3기의 생가지 비석은 논개가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출생이라는 불
변의 확고한 터전으로 심어진 금석문인 것이다.

이상 논개 출생에 대하여 고증 문헌과 금석문을 망라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논개는 주부자(朱夫子)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예로 부(父)는 주달문(朱達文) 모(母)는 밀양 박씨이며 출생지는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朱村)이다.

생년월일은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 4갑술로 그에 따라 논개(論介)라는 작명(作名)이 이루어졌음을 모든 문헌과 금석문이 일치함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앞으로의 과제는 논개의 사적에 대하여 사실적인 실존(實存) 인물로서 임진왜란의 국난에 처하여 국가 민족을 위해 열악한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엄청난 거룩한 거사 순국은 전무후무한 사실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정사에 수록하여 후세에 건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 교과서에 교재로서 그 사적을 채택하여 만고에 빛나는 충·효·열의 높으신 논개의 얼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문헌(文獻)에 나타난 논개(論介)

오 병 무
(순천대학교 교수)

[I]

역사상(歷史上)에 일어난 사건(事件)들이 뒷날 객관성(客觀性)을 지닌 하나의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화(說話)나 구전(口傳)보다는 우선 그 당시의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나 금석문(金石文)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순국(殉國)한 의암(義巖) 논개(論介) 사적(事蹟) 역시 객관성을 지닐 수 있는 문헌적 기록(文獻的記錄)이나 금석문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계(學界)로부터 의암 논개에 관한 역사적 사료(史料)로서 객관성을 인정(認定)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문헌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객관성을 지닌 사료(史料)로는 보지 않지만 금석문으로는 의암 논개가 순국한 바위에 새겨져 있는 ‘의암(義巖)’이라는 두 글자의 전서(篆書)가 있고, 문헌적 기록으로는 민담(民譚)과 설화(說話)를 모아 놓은 것으로 알려진 류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이 최초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본고를 쓰는 목적은 논개에 관한 각종 문헌의 내용들을 분석 객관적 사실들을 추출하여 논개(論介)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정립(定立)할 수 있는 그 가능 근거(可能根據)를 찾아 보려는데 있다. 본고에서는 앞의 두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그 후대에 이루어진 문헌들 가운데 논개에 관한 기록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1. 《어우야담(於于野談)》

《어우야담(於于野談)》은 2책으로 되어 있으며 필사본(筆寫本)이다. 광해군(光海君) 13년 서기 1621년 어우당(於于堂) 류몽인(柳夢寅)이 민간(民間)에 흩어져 있는 야담(野談)과 설화(說話)를 모아 저술한 것이다. 한글본과 한문본(漢文本) 두 종이 있는데 한글본의 역자(譯者)와 연대(年代)는 불분명하다. 이 《어우야담》은 《대동야승(大東野乘)》에 실려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어우야담》 필사본은 ‘장서각본(藏書閣本)’ ‘연세대본(延世大本)’ ‘천리대본(天理大本)’ ‘언해본(諺解本)’ 등 세 종이 있다. 이들 필사본은 문장상(文章上) 글자에 다소 다른 곳이 있다. 한편 류몽인의 문집 《어우집(於于集)》이 있는데 이는 6권 5책으로 이 역시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이 류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 권수(卷首) 인륜편(人倫篇) 효열조(孝烈條)에 논개(論介)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논개의 사적(事蹟)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논개(論介)는 진주(晋州)의 관기(官妓)였다. 계사년(癸巳年)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진주성(晋州城)에 들어가 왜적(倭賊)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陷落)되자 군사(軍士)는 패(敗)하고 백성은 모두 죽었다.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하고 축석루(矗石樓)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바위 아래에는 깊은 강물이었다. 왜병(倭兵)들이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接近)하지 못했는데 오직 왜장(倭將) 한 명만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미소(微笑)를 띠고 그를 맞이하였다. 왜장은 그녀를 꺾려고 하였는데 논개는 마침내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관기(官妓)로서 왜적(倭賊)을 만나 욕(辱)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이루다 기록할 수는 없으며 논개(論介) 한 사람에게 그친 것이 아니겠지만 그 이름들을 많이 잊어버렸다. 관기는 모두 음탕(淫蕩)한 창녀(娼女)들이라고 해서 정렬(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덕화(德化)를 입은 인물(人物)이라고 하겠거니와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충(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애달픈 일이다.(論介者晋州官妓也. 萬曆癸巳之歲金千鎰倡義之帥 入據於晋州以抗倭 及城陷軍敗散人民俱死. 論介凝粧觀服 立于矗石樓下峭巖之巔上 其下萬丈直入波江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獨一倭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誘而引之 論介遂抱持其腰 直投于潭俱死. 壬

辰之亂官妓之倭遇 不見辱而死者 不可勝記 非止一論介而多失其名. 彼官妓皆淫娼也. 不可以貞烈稱 而視死如歸 不污於賊 渠亦聖化中一物 不肯忍背國從賊 無他忠已而矣. 倚歟哀哉.)

2. 의암(義巖)

논개가 임진왜란 당시 순국(殉國)한 진주성(晉州城) 축석루(矗石樓) 아래 남강변(南江邊) 바위에 새겨진 ‘의암(義巖)’이라는 전서(篆書) 두 글자는 언제 누구에 의해 쓰여져 새겨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유몽인의 《어우집(於于集)》 어우선생년보(於于先生年譜)를 보면 이 ‘의암’이라는 글씨는 정대용(鄭大隆)이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대용이란 임진왜란 때 함경도에서 의병을 이끈 의병장(義兵將) 정문부(鄭文孚, 1565-1624, 字 子虛, 號 農圃)의 차자(次子)인데 그는 문장(文章)과 필법(筆法)에 뛰어났다고 한다. 《진양속지(晉陽續誌)》 권이(卷二), 인물조(人物條)를 보면 정대용은 아버지 정문부가 초(楚) 회왕(懷王)에 대해 지은 시(詩)로 인조(仁祖) 2년 서기 1624년 1월 이괄(李适)의 난(亂)에 연루되어 무고(誣告)로 죽게 되자 형 정대영과 함께 진주(晉州)로 이거(移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두 기록이 사실이라면 ‘의암’이라는 글씨가 새겨지게 된 것은 인조 2년 1월 서기 1624년 이후가 된다.

한편 현재 축석루(矗石樓)에 걸려있는 <의암기(義巖記)>를 보면

…논개(論介)는 짐짓 미소까지 지으면서 맞아들인 뒤 그 왜인(倭人)을 안고 강에 빠져 죽었다. 이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마침내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를 새겨 그녀의 의열을 정표했다고 한다. 의롭도다! 이 바위여! 이 어찌 《주역(周易)》에서 말한 ‘개우석(介于石)’이 아니며 위시(衛詩)에서 말하는 ‘불가전(不可轉)’이 아니리오.(原文 省略)

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의암’이라 새겨져 있는 바위는 논개와 직접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녀와 직접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의암’이라 부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 ‘의암’이라 새겨지게 된 것은 논개가 이곳에서 순국(殉國)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의암기>는 효종(孝宗) 2년 서기 1651년 당시 간관(諫官) 오두인(吳斗寅)이 쓴 것이다.(이에 대하여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양곡집》의 내용을 참고

할 것)

3. 《양곡집(陽谷集)》

《양곡집(陽谷集)》은 양곡(陽谷) 오두인(吳斗寅)의 저술로 4권 2책으로 되어 있는 인쇄본이다. 영조(英祖) 22년 서기 1746년 아들 태주(泰周)와 사위 도암(陶巖) 이재(李緯)가 간행하였다. 오두인은 인조(仁祖) 2년 서기 1624년에 태어나 숙종(肅宗) 15년 서기 1689년에 죽었다. 이 오두인의 문집인 《양곡집》 권삼(卷三)에 <의암기(義巖記)>가 있다. 이 <의암기>는 진주성이 함락된 지 58년이 지난 효종(孝宗) 2년 서기 1651년에 쓰여진 것이다. <의암기(義巖記)>의 내용을 살펴 보면

진양성(晉陽城) 축석루(矗石樓) 아래 남강(南江) 가에는 가파른 바위 하나가 깊은 강물 속에 솟아 있다. 물에서 그 바위로 건너 가려면 한 걸음밖에 앞되지만 그 위에서 한 발짝이라도 헛디디면 깊은 강물 속에 빠질 수 있는 곳이다. 계사년(癸巳年)에 왜적(倭賊)이 침입(侵入)해 오자 창의(倡義)를 해 싸웠으나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성이 함락되자 성안의 백성들은 대부분 목숨을 부지하려 애썼지만 관기(官妓) 논개(論介)만은 왜적을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怨讐)로 여겨 순국(殉國)키로 맹세(盟誓)하고 몸단장을 곱게 한 뒤 이 바위 위에 날아갈듯 우뚝 서 있었다. 여러 왜병(倭兵)들은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위태로운 지세(地勢)를 겁내 감히 접근(接近)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왜장(倭將) 한 명이 뛰어 건너가 물으로 논개를 띄어 내려하였다. 논개는 짐짓 미소를 지으면서 왜장을 맞아들인 뒤 그를 껴안고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후세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마침내 ‘의암(義巖)’이라 두 글자를 새겨 그녀의 의열(義烈)을 정표(情表)하였다고 한다.

의(義)롭도다! 이 바위여! 이 어찌 《주역(周易)》에서 이른 바 ‘개우석(介于石)’이 아니며 위시(衛詩, 《詩經》)에서 이른 바 ‘불가전(不可轉)’이 아니리오. 그녀는 남쪽 고을 진주(晉州)의 한 창기(娼妓)로서 마침내 스스로 의(義)를 좇아 죽을 곳을 얻어 이처럼 대장부(大丈夫)의 열렬한 사업(事業)처럼 처리(處理)함으로써 당시 여염(閭閻)집 부인(婦人)들을 부끄럽게 하였구려. 이는 참으로 이 나라의 깊은 사랑과 두터

운 은택(恩澤)이 백성들로 하여금 감동(感動)하여 분발(奮發)케 한 것이리라. 마치 남국(南國) 부인네들이 문왕(文王)의 인정(仁政)에 감화(感化)되어 강한(江漢) 땅의 풍속(風俗)을 바꾸게 한 것과 같지 않다고 한다면 어찌 이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前省略〉 義哉巖也. 庸詎非大易所謂介于石 衛詩所謂不可轉者耶. 彼以南州之一娼妓 乃能從容取義得其死所 辦此烈烈如大丈夫事業 以愧夫當日之髯婦 苟非我國家深仁厚澤 能使人感發者 有若南國婦人 化文王之政 變江漢之俗 則何以得此乎.)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모(李某)가 김창의(金倡義)와 함께 성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자 몇 명의 왜적을 두 팔에 끼고 이 바위 아래로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의열(義烈)이 많다는 말인가. 아! 계사년에서 지금의 갑자년(甲子年)까지 일주년(一週年)이 지났는데 이처럼 당당하게 의(義)를 위해 죽어간 곳을 아직까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별(分別)치 못하고 있으니. ‘예의(禮義)의 나라’라고 하면서 문헌(文獻)으로 증명(證明)할 수 없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閒心)한 일일진저!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피차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두 사람 다 확연(確然)하여 한 사람도 뺄 수 없다고 하겠으니 이 바위에 그들의 의열(義烈)을 함께 일컬어준들 무엇이 나쁘겠는가?(〈前省略〉 噫. 癸巳于今甲子纔一周 而以如彼堂堂死義之所 尙未能辦其彼此 是何禮義之邦而文獻之不足徵耶 殊可欠也. 然而均是死於義 則彼亦一義也. 此亦一義也. 俱可謂確乎其不可拔者 何傷竝稱其義於此巖也.)

내가 신묘년(辛卯年, 효종 2년) 10월 24일 진양(晉陽)에 다다르니 이날이 마침 성이 함락되었던 날이었다. 진주 사람들은 의례적(儀禮的)으로 이날 강변(江邊)에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의혼(義魂)들에게 잔(盞)을 드린다고 한다. 내가 이에 더욱 감동(感動)된 바 있어 마침내 축석루에다 ‘의암기(義巖記)라 글을 써 놓게 되었다.(〈原文省略〉)

4. 소계문(疏啓文)

논개에 관한 소계문(疏啓文)은 특히 《충렬실록(忠烈實錄)》에 많이 들어 있다. 《충렬실록》은 2권 2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임진왜란 때 전사(戰死)한 진주 목사(晉州牧使) 김시민(金時敏)과 우병사(右兵使) 최경회(崔慶會) 등 27명의 전기(傳記)를 기록한 것이다. 순조(純祖) 31년 서기 1831년 정덕선

(鄭德善) 등이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김시민을 충민사(忠敏祠), 최경희 등을 창렬사(彰烈祠) 등에 배향(配享)하게 된 전후(前後)의 사실(事實)과 포상문(褒賞文)을 실은 다음 수성기(守城記), 함성기(陷城記), 소계(疏啓), 비문(碑文), 제문(祭文) 등을 기록하였다.

《충렬실록》 권이(卷二), <비변사장(備邊司狀)>의 논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축석루(矗石樓) 아래의 남강(南江)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곳이 있으니 곧 의암(義巖)이다. 이 바위에 ‘의(義)’자 호(號)가 붙은 것이 왜란(倭亂) 직후이고 보면, 그 어찌 천만년을 두고 불멸(不滅)할 대의(大義)가 아니겠는가? 진주성(晉州城)이 함락되던 날 수신(首臣) 수령(守令) 및 제장(諸將) 등이 혈전(血戰)을 치루던 수삼십원이 모두 항절사의(抗節 死義)한 뒤 오직 한 기생(妓生) 논개(論介)가 나라를 위해 적을 죽일 계획을 품었던 것이다. 몸단장을 곱게 하고 강가의 축석 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 성 위의 왜적 중 한 추장(酋長)이 보고 아름답게 여겨 즉시 논개가 앉은 곳으로 내려갔다. 논개가 짐짓 맞아들이는 기색을 보이자 왜장이 즐거워 머뭇거리는데 사이에 논개가 갑자기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 들었다.

그 바위는 강 안에서 떨어져 있고 그 위에는 두 사람이 앉을 만한 곳이며, 그 밑은 깊은 물이다. 뜻하지 않았던 일이니 왜장이 비록 용력(勇力)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급작히 추락(墜落) 당하는 그 화(禍)를 면할 수 있겠는가? 논개의 이처럼 자기 몸을 털끝만큼도 여기지 않고 절의(節義)를 산과 같이 무겁게 지킴은 가히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빛을 다투어도 남음이 있었다. 이에 후세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이름하여 ‘의암’이라 하였고, 사군자(士君子)들이 또한 전자(篆字)로 의암이란 호를 새기었으니 그 바위가 삭아 없어지기 전에는 당당한 ‘절의(節義)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겠는가?

당초에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掠取) 당해 있던 왕씨(王氏)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天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封)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義烈)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가 있으리오? 당시에 전몰(戰歿)한 제신(諸臣)들은 건사 사액(建祠賜額)하여 오늘날 유감이

없지만, 논개에 대해서는 1백여년 간 임금에게 계청(啓請)하지 못한 터라 내내 제자(諸子)들이 마음 속에 애석해 하면서 그녀의 의열에 감동되어 왔음이 이에 더할 수 없었다. 이러한 뜻을 묘당(廟堂)에 날날이 품달(稟達)하여 처분(處分)을 기다림이 어떻겠는가?(〈原文省略〉)

위의 글은 당시 진주 사인(士人)들이 전진주(前晉州) 별장(別將) 윤상보(尹商輔)에게 장문을 우병영(右兵營)에 올리도록 권유하였는데 그 때 그 권유를 받아드려 윤상보가 쓴 글이다. 이를 다시 경상우병마사(慶尙右兵馬使) 최진한(崔鎭漢)이 인용(引用)하였는데 경종 2년 2월 서기 1722년 올린 <청증직정위차설제실계(請贈職定位次設齋室啓)>를 보면 다음과 같은 논개에 관한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고(詳考)할 만한 예 기록을 찾지 못해 실상(實相)을 알 수 없었는데 근래야 야담고기(野談古記) 가운데에서 비로소 그 근인(根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암(義巖)이란 전각(篆刻)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야기(野記)에 실려 있는 것을 또한 지금 보니 사실임에 틀림없고 허람(虛覽)된 전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창기(娼妓)였지만 뒤에는 마침내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격권(激勸)할 것을 헤아려야 하겠으며 끝내 완전히 민멸(泯滅)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마땅히 포이지례(褒異之禮)를 참작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原文 省略)

이를 받은 비변사에서는 내용을 검토한 뒤 논개의 포양(褒揚)을 경종(景宗)에게 계문(啓聞)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종은 마침내 예조(禮曹)로 하여금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고한 뒤 시행토록 할 것을 명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비변사에서는 경상우병사 최진한에게 다음과 같은 관문(關門)을 보내게 되었다.

관기(官妓) 논개(論介)가 난중(亂中)에 자기 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왜적(倭賊)과 함께 죽은 것이 과연 세상에 널리 전해진 말과 같다면 가상(嘉尙)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명백(明白)하게 의거(依據)할 만한 문적(文籍)이 없으니, 포미(褒美)의 중전(重典)을 가벼히 의론키가 어렵다. 만약 의거할 문적이 있거든 본영(本營)이 본사(本司)에 논보(論報)한 뒤 시행(施行)하는 것이 마땅하다.(〈原文省略〉)

위의 비변사의 관문에 따라 최진한은 진주 사인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나머지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세우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종 2년 4월 민관(民官)이 함께 재정을 출자하고 정식(鄭杓, 1683-1746)이 비문을 짓게 되었는데 이 때 건립하게 된 비(碑)가 곧 ‘의암사적비명(義巖事蹟碑銘)’이다. 이 비문에는 《어우야담》의 논개 순국 사실을 전제한 뒤 ‘이 내용은 당시의 실록(實錄)에서 나왔으므로 지금 비문을 새김에 있어 불필요한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 그대로 비에 옮겨 새긴다.’고 되어 있으며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논개에 관한 글을 새겼던 것이다.

유독 가파른 그 바위 위에 그녀 홀로 우뚝 서 있도다. 그녀가 그 바위 아니었다면 어찌 죽을 곁을 얻었겠으며, 바위인들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어찌 의롭단 소리를 듣겠는가? 이 남강가의 높다란 바위에는 만고(萬古)의 꽃다운 마음이 서렸도다.(〈原文 省略〉)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건립한 우병사(右兵使) 최진한(崔鎭漢)은 그 뒤 다시 비변사(備邊司)에 신보(申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관기(官妓) 논개(論介)의 서적(書籍)은 고금(古今)의 관청 문적(官廳文籍) 가운데에서는 의거(依據)할 만한 기록이 전혀 없으나, 의암(義巖)이란 이름이 논개가 순국(殉國)한 뒤부터 영남(嶺南) 사람들이 명명(命名)한 것이었고, 이름이 드러나자 선비들이 ‘의암’이란 두 글자를 새겼던 것이니, 백여 년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논개는 자손(子孫)이 없는데다 족속(族屬)도 적어 그 당당한 미명(美名)을 후대(後代)에 전할 계제가 없기에 공사간에 힘을 합쳐 조그마한 비(碑)를 의암 위에 세우고 서명(署名)을 새겨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안타까움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비문(碑文)의 사연(事緣)은 곧 옛날에 류몽인이 지은 야담(野談)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비에 새겼으니 어찌 사림(士林) 이하 천만인이 공지(公知)하는 바 실적(實跡)이 아니겠습니까? ‘의(義)’자가 새겨진 돌은 만인이 익혀 보는 바이며, 야담(野談)의 글은 고인(古人)의 공의(公議)이니 의거(義舉)한 문적(文籍)이란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에 비문(碑文)도 한 벌 인출해서 감봉해 올리니 참작면통(參酌

面通)하고 행하시어 영남(嶺南) 사람들이 백여 년을 두고 감정(感情)을 품게 한 폐단(弊端)을 풀도록 하십시오.(〈原文 省略〉)

위의 최진한(崔鎭漢)이 비변사(備邊司)에 신보(申報)를 받고 비변사에서는 최진한에게 다음과 같은 재관문(再關文)을 보낸다.

관기(官妓) 논개(論介)가 왜적을 안고 물에 빠져 순국(殉國)함으로써 의암(義巖)이란 칭호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다니 관기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절(奇節)이 있는 것은 역시 가상하다고 하겠다. 자손(子孫)을 심방(尋訪)한 뒤 특별히 급복(給復)하여 포이지전(褒異之典)을 보이도록 하라.(〈原文 省略〉)

이 재관문(再關文)을 받은 최진한은 비변사에 다음과 같은 연보(連報)를 한다.

의기 논개의 자손(子孫) 유무(有無)를 관문(關文)을 띄워 사문(查問)하였더니 지방관(地方官)들이 회보(回報)하기를 ‘논개 자손의 유무를 경내(境內) 방방곡곡(坊坊曲曲)을 헤매면서 고노인(古老人)들을 찾아 물어 보았지만 원래 자손이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복(給復)의 특전(特典)을 배풀 곳이 없으므로 그 사유를 첩보(牒報)합니다.

고. 그 뒤 최진한이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가 되어 임금에게 ‘청증직소(請贈職疏)’를 하였는데 그 내용 가운데 논개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류몽인은 문장가(文章家)로 이름난 사람인데다 《어우야담(於于野談)》 가운데에 논개(論介)의 순국(殉國) 사실(事實)을 매우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臣)은 언제나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책을 덮고 그녀의 이적(異蹟)을 감탄(感歎)해 마지 않았는데 우병사(右兵使)로 진주(晉州)에 부임(赴任)한 뒤에야 과연 축석루 아래 남강 위의 초석(礎石)에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이 고노(古老)에게 물었더니 그 바위가 곧 논개의 살신(殺身) 섬적(殲賊)한 곳이었고 그 곳의 전설(傳說)도 자못 옛 기록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신은 그 바위를 보고 그 전설을 도리켜보면서 의담(義膽)이 스스로 격동(激動)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난중(亂中)에 절개(節慨)를 굽히고 몸을 판 사람의 수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 누구인들 일개 창기(娼妓)로서 사군자(士君子)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리라고 여겼겠습니까? 옛날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掠取) 당해 있던 왕씨(王氏)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天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封)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義烈)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가 있으리오?

아! 야담(野談)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분명하게 실려 있고 이끼낀 바 위에는 ‘의(義)’자가 삭아 없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도 유독 그녀의 아름다운 일에 대한 정표(旌表)함이 없으니 이는 천신(天神)만이 탄식(歎息)하고 애석(哀惜)해 하는 바가 아니라 실로 영남(嶺南)의 사민(士民)들 모두가 탄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은 어리석고 미천한데다가 직위(職位)가 낮고 말에 무게가 없어서 전일(前日, 경종 연간)에 두번이나 계청(啓請)하였지만 모두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또 다시 전하(殿下)를 번거롭고 어지럽게 해서는 않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의 소관(所關) 업무(業務)도 복잡하고 군사(軍士)를 훈양(恤養)하여야 하고 기민(饑民)을 진구(陣救)할 방도(方道)에도 겨를이 없아옵니다. 실로 이러한 일이야 당장에 급한 일도 아니고 신의 직분에 관계되는 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오히려 외월(猥越)됨을 피치 않고 망령(妄靈)되이 논함은 저 제신들과 한 기생(妓生)이 순국한 후 원한(怨恨)을 품고 있는데도 이미 자손들의 애소(哀訴)함이 없어서 끝내는 전하께서 보고 듣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사리(事理)를 분별(分別)하지 않고 진청(陳請)하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이 못났다고 하여 신의 말까지 폐하지 마시고 특별히 21명의 신하에게 골고루 증직(贈職)의 특전을 베푸시고 관기 논개에게도 정표하는 상장을 내리시어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도로 삼는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原文 省略〉)

이상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논개에게 정표하는 상장을 내려줄 것을 당시 비변사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마침내에는 임금에게 직접 소(疏)를 올리게 된 것이다.

정조(正祖) 22년(1798)에 이르러 우병사 안숙(安肅)이 작성한 <충민창열양사조향절목(忠愍彰烈兩祠助享節目)>의 내용 가운데

영조(英祖) 16년(1740)에 본영(本營) 남덕하(南德夏)가 또다시 21명의 신하(臣下)에 대한 증직(贈職)과 의기(義妓)의 정포(旌褒)를 계청(啓請)하여 마침내 윤희(允許)를 받게 되었다.(原文 省略)

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논개에게 정려의 은전(恩典)이 내려진 것은 영조 16년 서기 1740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5. <의기전(義妓傳)>

<의기전(義妓傳)>은 박태무(朴泰茂, 1677-1756, 字 春卿, 號 西溪, 本貫 泰安)가 영조(英祖) 16년 서기 1739년 이후에 지은 것으로 그의 문집(文集) 《서계집(西溪集)》에 들어 있다. <의기전>에는 다음과 같은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만력(萬曆) 계사(癸巳) 6월 그믐에 왜적(倭賊)들이 진주성(晉州城)을 함락시켰다. 성이 함락되자 다시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는데 논개(論介)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국사(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구나 허나 그냥 죽는 것은 아무 보탬이 없으니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 입고 의암(義巖)에 올라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 적의 우두머리가 좋아하며 다가오니 마침내 웃으며 맞이하여 그와 더불어 춤을 추었다. 춤이 어느 정도 이르자 적을 끌어안고 강으로 몸을 던져 죽었다. 모든 적들이 크게 놀라 그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미칠 수가 없었다. 적들은 장수가 죽자 크게 혼란되어 다라나고 무너져 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선비들은 독서(讀書)를 통해 의리(義理)를 배우고 익혀서 평소 담론(談論)을 할 때마다 충신(忠臣)과 열사(烈士)가 될 것을 자부(自負)하지 않은 때가 없건만 하루 아침에 사변(事變)을 만나서는 생사(生死)의 갈림길에서 배회(徘徊)하며 결연(決然)치 못해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사람이 종종 있다. 저 무지(無知)하고 한결같이 천

(賤)한 창기(娼妓)가 사직(社稷)을 걱정하고 강상(綱常)을 부지(扶持)하였다. 미소(微笑)를 머금은 채 강가에 임(臨)하여 죽음을 귀가(歸家)하는 것처럼 애석(哀惜)해 하는 뜻도 돌아봄도 없이 맞이 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의 기묘(奇妙)하고 비밀스런 계책(計策)은 다른 사람들의 뜻과 생각 이 미치지 못하는데서 나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적의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패잔(敗殘)하여 상처(傷處)만 남은데에 사기(士氣)를 북돋아 주었다. 작은 한 목숨을 버림으로써 남방(南方)의 수백년의 근기(根基)를 회복(回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앞 옛 역사(歷史)에 일찌기 있었는가? 나는 이경(李敬)과 백사림(白士霖)의 무리들을 초청(招請)하여 이를 일러주고자 한다.(萬曆癸巳六月晦日賊陷晉陽城 城陷而無復可爲者 論介喟然曰國事至此生不如死 然徒死無益 豈爲溝瀆之諒哉. 以凝粧盛服登義巖彈琴而歌酋長喜而來 遂媯然而迎與之舞 舞將半抱賊投江而死. 諸賊大驚欲救之已無及矣. 賊喪其帥大亂奔潰城復全. 嗟乎. 士讀書講明義理平居談論莫不自許以忠臣烈士. 而及一朝遇事變未免徘徊 於死生之間不能決然於能魚之分 卒爲天下後世笑者種種焉. 彼無知一賤娼之能憂社稷扶綱常. 含笑臨江視死如歸了無讖毫顧惜之意. 而又其奇謨秘策出於人意慮不到 殲賊魁於乘勝方張之際 振士氣於敗衄殘傷之餘 損一縷而爲南方數百年 復根基者. 此果前古史所嘗有者乎. 吾欲招李敬白士霖輩而告之)

그런데 이 <의기전>은 진주에 ‘의기사(정려)’가 창건된 뒤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의기전>의 끝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임금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의기(義妓)의 정려(旌閭)를 세우라 명(命)하였는데 정려는 의암(義巖)의 북쪽 수십보(數十步)에 있다.(上聞之 命立義妓之閭 閭在義巖北數十步許)

6. 진주의기사기(晉州義妓祠記)

정약용(丁若鏞)이 <진주의기사기(晉州義妓祠記)>를 지은 것은 1780년경으로 추정된다. 의기사(義妓祠)가 건립된 해는 1739년으로 그 뒤 정조(正祖) 4년 서기 1780년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홍화보(洪和輔, 1726-1791)가 보수(補修)하였다. 홍화보가 의기사를 보수하고 정약용에게 그

기(記)를 짓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婦人)들의 천성(天性)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아래로는 간혹 울분을 참지 못해 죽는 여인도 있고, 위로는 의리상(義理上)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여인도 있는데, 이 들을 절(節)이니 열(烈)이니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목숨만을 끊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창기(娼妓)같은 여인들이란 어려서부터 음탕(淫蕩)하고 지조(志操)없는 여인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성품이 허량(許良)하여 그 마음 속에는 남자이면 모두 지아비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부부간(夫婦間)의 도리(道理)도 모를진대, 하물며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를 알 여인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전장(戰場)에서 미녀(美女)들을 마음대로 노략질하기 그지 없었지만, 일찍이 사절(死節)한 여인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계사년에 왜적이 진주성을 함락했을 때 기(妓) 의랑(義娘)은 왜추(倭酋)를 유인(誘引)해 강 가운데의 바위에 마주서서 춤추다가 춤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왜추를 안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사우(祠宇)로다! 이 어찌 열렬한 현부인(賢婦人)이 아니냐? 지금 그 한 왜추를 죽인 것만으로 삼사(三司)의 치욕(恥辱)을 씻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성이 함락될 무렵 인근 읍에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구원하지 않았고, 조정(朝廷)에서는 전공(戰功)을 시기(猜忌)하고 패배(敗北)를 달갑게 여겨 금탕(金湯)의 견고함을 궁구(窮寇)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였으니, 忠臣(충신) 지사(志士)들의 분개함이 이 싸움에서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 연약하고 어린 여인이 마침내 적추(賊酋)를 죽여 나라에 보답할 수 있었다면 군신간의 의리가 천지간에 밝혀졌으니 한 성의 패배쯤은 근심할 것 없었다. 이 어찌 장쾌하지 않은가? 사우(祠宇)가 오래된 데다 수리(修理)하지 않아 비바람이 배어드는 지라, 지금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이 이에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이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기록케 하였다. 스스로도 시(詩) 28언(二十八言)을 지어 축석루 위에 써 붙인다.(婦人之性輕死 然其下者或不耐忿毒幽而死 其上者義不忍汚辱其身而死 及其死概謂之節烈 然皆自殺其軀而止 至若娼妓之屬 自幼導之以風流 淫蕩之物遷移轉變之情 故其性亦爲之流而不滯其心 以爲人盡夫也. 於夫婦尙然 有能微知君臣之義者哉. 故自古兵革之場 繼掠其美女者何限而未嘗聞死節者. 昔倭寇之陷晉州

也. 有妓娘者引倭酋 對舞於江中之石 舞方合抱之投淵而死 此其祠也. 嗟乎 豈不烈烈賢婦人哉. 今夫一酋之殲 不足以雪三司之恥. 雖然城之方陷也. 隣藩擁兵而不救朝廷 忌功而樂敗 使金湯之固 失之窮寇之手 忠臣志士之憤歎 喪恨 未有甚於斯役者矣. 而眇小一女子 乃能殲賊酋以報國 則君臣之義 然於天壤之間 而一城之敗 不足恤也. 豈不快哉. 祠久不葺風雨漏落 今節度使洪公 爲之補其破 新其丹碧 令余記其事 自爲詩二十 八首 題之矗石樓上.)

7.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은 5권 5책으로 되어 있는데 순조(純祖) 즉위년(即位年) 서기 1800년에 간행되었다. 이 《호남절의록》 권지일하(卷之一下, 33面), 임진의적(壬辰義蹟), 충의공최일휴당사실조(忠毅公崔日休堂事實條)를 보면 논개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기생(妓生) 논개(論介)는 장수(長水) 사람으로 공(公, 崔慶會)이 사랑하였다. 공(公)을 따라 진주성으로 들어갔으나...(妓論介長水人公所眇也. 隨入晉州及城陷盛其塗澤誘賊將二人對舞南江危巖上兩手稅(씻을세, 칠탈)二賊墜江而死後人 其巖曰義巖立碑)

위 기록에서 최초로 논개가 장수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경회(崔慶會)가 그녀를 사랑하였다는 기록도 이것이 처음의 것이다. 그런데 위의 기록은 ‘충의공최일휴당사실조(忠毅公崔日休堂事實條)’의 뒷 부분에 부기(附記)되어 있는데 이는 최경회와 논개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 가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논개에 관한 기록들이 대부분 진주(晉州)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나 이는 논개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그 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 논개에 관한 내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8.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은 9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종(憲宗) 5년 서기 1839년 간행되었다. 이 《호남삼강록》 권지일(卷之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 논개조(論介條)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논개는 장수의 관기(官妓)로 진주병사(晋州兵使) 최경회(崔慶會)가 사랑하였다. …루(樓) 아래에서 (왜장파) 함께 죽었으므로 그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을(진주)에 비(碑)를 세우고 관(官)으로부터 매년 치제(致祭)를 한다. 본현(本縣) 장수에 정려(旌閭)가 있다. (論介長水官妓晋州兵使崔慶會之所愛也壬辰城陷後倭將與論介大宴于臺石樓論介乘其倭將之大醉抱而 同投樓下而死因立碑於其州自官每年致祭 旌閭於本縣長水)

위의 기록에서 보면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의 기록과는 달리 논개조(論介條)를 따로 분리하여 놓았다. 그리고 논개가 장수(長水)의 관기(官妓)라 하였으며, 진주병사(晋州兵使) 최경회(崔慶會)가 그녀를 사랑하였다고 하였다. 논개가 장수의 관기(官妓)였는데 진주병사인 최경회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참고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 권지일(卷之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 최경회조(崔慶會條)를 여기에 부기해 둔다.

崔慶會海州人號三溪受學於奇高峯大升門文科 壬辰收散亡卒進至長水擊賊破之轉向晋州開寧屯賊聞風賁潰拜慶尙右兵使與金健齋入晋州累戰累却及其城陷登南譙樓北向四拜赴水而死 贈吏判旌閭享彰烈祠 賜額綾州褒忠晋州官奴得印於南江淺灘卽公殉節時抱而投江者也馳 啓封進 英廟朝親製銘序親製祭文致祭于彰烈褒忠祠 諡忠毅綾州

9.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臺石義妓論介生長鄉豎名碑)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臺石義妓論介生長鄉豎名碑)는 헌종(憲宗) 12년 서기 1846년 논개의 출생지를 기념하기 위해 장수현(長水縣)에서 세운 것으로 당시 장수현감 정주석(鄭胄錫)이 비문을 지었다. 그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난(國難)을 당하였음에도 구차스럽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절개(節概)를 굽히지도 않는 것은 열사(烈士)에게도 어려운 일일진대 한갓 여자로서 대의(大義)를 판단(判斷)하여 그 어찌 열렬(烈烈)하지 아니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건대 늙름한 열기(熱氣)가 해와 별처럼 밝았으니 그 어찌 장엄(莊嚴)치 아니한가. 산에는 영지(靈芝)가 있고 물에는 예천(醴泉)이 있는 것도 군자(君子)들이 칭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이

름과 절개가 천성(天性)에 근원(根源)해서 사람의 이목(耳目)에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서라. 부끄럽게도 나는 육순(六旬)의 보잘것 없는 선비로 끝내 덕업(德業)을 이룬 공(功)이 없지만 매양 이 사람같은 훌륭한 공과 의로운 충렬(忠烈)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고 공경(恭敬)하는 마음을 일으켜 항상 깊이 감동(感動)하고 감개(感慨)하였다. 지금 의기(義妓)의 이름을 세워 후세(後世)에 전하면서 늘 그녀의 영향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삼가 글로 적어 두려 하노라.

10. 《호남읍지(湖南邑誌)》

《호남읍지(湖南邑誌)》는 1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종(高宗) 9년 서기 1872년에 간행되었다. 이 《호남읍지》 가운데 장수현조(長水縣條), 절의편(節義篇), 논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의기(義妓) 논개(論介)는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다.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가 현감(縣監)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에 최공(崔公)이 진주병사(晉州兵使)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였을 때 그녀가 따라갔다.

위 내용에서 논개가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다.’라 하여 논개의 출생지를 밝혀 놓은 최초의 기록이다.

[Ⅲ]

이상에서 살펴 본 바 각종 문헌이 만들어진 년대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어우야담(於于野談)》은 광해군(光海君) 13년 서기 1621년에 필사본으로 구성되어었는데 당시 진주 지방의 민간(民間)에 흩어져 있던 논개의 순국에 관한 내용을 야담(野談)과 설화(說話)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 논개의 사적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의암’이라는 글씨가 새겨지게 된 것은 인조 2년 1월 서기 1624년 이후로

《어우야담(於于野談)》의 내용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암기(義巖記)>는 효종(孝宗) 2년 서기 1651년에 쓰여진 것으로 '의암'의 글씨와 바위 그리고 《어우야담(於于野談)》의 내용을 구체화 내지는 사실화(事實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계문(疏啓文)은 순조(純祖) 31년 서기 1831년에 《충렬실록(忠烈實錄)》이라는 이름의 책 속에 실려 있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 훨씬 이전의 기록들로서 논개에 관한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 기록들에 의해 마침내 논개의 순국(殉國) 사실이 인정되어 정려(旌閭)의 은전(恩典)까지 조정(朝廷)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의기전(義妓傳)>이 쓰여진 것은 영조(英祖) 16년 서기 1739년 이후로, 《어우야담》에서 비롯된 논개의 사적들이 이 <의기전>으로 말미암아 국가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논개의 의거를 그녀의 충성심과 지략(智略)에 의한 행동으로 평가(評價)함으로써 논개의 사적이 좀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는 1780년경으로 추정된다. 의기사(義妓祠)가 건립된 해는 1739년으로 그 뒤 정조(正祖) 4년 서기 1780년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홍화보(洪和輔)가 보수(補修)하였다. 이 <진주의기사기>는 논개의 순국을 '절열(節烈)'과 '충의(忠義)'가 함께 지켜졌다고 평가된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논개의 순국을 여인으로서의 '의열(義烈)'과 신하되는 백성으로서의 '충절(忠節)'을 함께 승화시킨 행동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 하겠다. 이 내용은 논개 사적에 대한 그동안의 무시(無視)되었던 바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를 회복할 수 있게 한 것이라 평할 수 있다.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과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은 뒤 늦게 간행되기는 하였지만 논개의 출생지와 생애에 관하여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논개의 충생지가 어느 곳인지 몰랐다가 이들 기록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논개는 장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한편으로는 최경회(崔慶會)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는 논개가 장수 사람이라는 것을 확연히 밝혀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鄉暨名碑)와 《호남읍지(湖南邑誌)》는 가장 뒤늦게 제작되긴 하였지만 논개의 인품(人品)을 짐작케 하고 논개가 장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밝혀 놓고 있다.

이러한 문헌적 기록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민담이나 설화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겠지만 그 단순한 민담이나 설화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어느 정도 그 사건(事件)에 직접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근거에 의해 만들어진 민담이나 설화가 유포(流布)될 때에 점차 변형되어 때로는荒唐無稽(荒唐無稽)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같고 닮아져 정밀하게 당시의 사건과 대응(對應) 내지는 그 사실에 가깝게 부합(附合)될 수도 있다고 본다. 논개의 사적에 관한 앞의 문헌들은 후자(後者) 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헌들을 시간을 두고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본다면 논개의 출생과 생애도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으로 밝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詩文에 나타난 論介의 生涯

— 漢詩를 中心으로 —

朴 基 政

(時調詩人·文學博士)

1. 序 言

우리 나라 역사를 통해 忠節·義烈을 실천한 인물들이 많았지만, 어떤 이는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역사의 뒀안길을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분들의 생애와 업적이 散佚되어버렸다는 핑계로 史蹟을 남기지 못한다면, 후대에게 무슨 명분이 서겠는가? ‘義人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남겨졌을 때, 진실로 역사는 존재하게 된다’고 司馬遷은 역사적 사명 의식을 『史記列傳』의 自序에서 밝힌바가 있다. 先代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통해서 후대인들은 옷깃을 여미고 자신들의 존재를 재삼 확인하는 것이다.

前漢의 文人이었던 賈誼(기원전 200~168)는 그의 <鵬鳥賦>에서 ‘탐욕한 사람은 재물에 목숨을 걸고, 권세욕이 강한 사람은 그것에 끌려 죽고, 범용한 사람은 그저 생명을 탐하고 아낄 뿐이지만, 義烈한 사람은 명예에 목숨을 건다’고 하였다. 조선의 긴 역사를 돌이켜볼 때 王·侯·將·相도 많았거니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基層 民衆이 뿌린 피로 이 강토를 지탱해 왔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때 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에게 역사의 한 章 조차도 割愛해주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一然 禪師가 『三國遺事』(고려 25대 忠烈王11, 1285)를 저술함은, 왕명에 의한 正史로서의 『三國史記』(고려 17대 仁宗23, 1145)에 逸史가 많았음이 아니던가? 逸事遺聞이라고 하여 사실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正史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역사적 사실이 아님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후대인의 義妓 論介에 대한 사실적 탐구와 정리는 필요하며, 그에 대한 후대인의 칭송은 역사를 장식하는 한 章으로서 뿐만 아니라, 子子孫孫 口口傳承되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실재하는 논개의 인물에 대한 역사적 해명은 어디까지나 역사학의 몫이며, 역사 속의 인물로서 논개의 출생·성장·품성·업적 등의 모든 행적이 문학가에 의해 재구성되어 독자들에게 인지됨으로써, 그에 대한 평가가 새로운 감동으로 엮어져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머물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여 영구히 기억되는 인물로 남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와 문학은 그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문학은 사실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를 그 소재로 다루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필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詩文에 나타난 論介의 生涯>이다. 이 글의 제목에 맞추어 이제 나는 한 문학이론가의 말을 인용하려 한다. 18세기 영국의 文學史家인 토마스 와튼·Thomas Warton은 그의 <英詩의 歷史>(History of English Poetry, London, 1774)에서 문학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의 한 방법으로서, 문학작품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내용을 들었다. 사회적 내용 즉, 작품속에 담고 있는 사회적 사건, 관습, 문명사, 국가적 운명 들은 곧, 역사의 材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6세기 말 壬辰倭亂이라는 국가적 운명 속에서 論介가 보여준 義節 행위는 곧, 문학작품의 素材요,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며, 그대로 역사의 材源인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本稿에서는 論介가 義節했던 壬辰倭亂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이룬 업적을 칭송한 詩 篇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수집하여 一瞥하고, 그 詩文에 나타난 논개의 生涯를 조명함으로써, 그의 위대한 정신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詩文學의 올바른 가치평가와 아울러 時空을 초월한 韓民族의 정신사적 확립이라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詩文學이라고 하면 그 문학적 장르가 다양하여, 논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함에 과제의 난점이 있다. 한국 詩文의 범위는 口碑文學으로서 民謠가 있고, 漢詩가 있으며, 傳統 詩歌로서 時調와 歌辭가 있으며, 현대시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금번 발표에서는 우선 한시문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하며, 타시가에 대해서는 추후 완성된 논문을 통하여 그의 진면목을 보일 것이다.

2. 本 論

의기 논개의 節義를 노래한 시는 십 수편에 이른다. 우리 詩史에서 한 인물에 대하여 이처럼 많이 애송되어진 예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논개가 순절

한 당시 (선조 26년, 1593)부터 최근까지의 시문들을 찾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許 澮(1758~1829) <矗石樓次板上韻>(칠언율시) … (『濂湖文集』卷1)
2. 丁若鏞(1762~1836) <矗石懷古>(칠언율시) · (『與猶堂全書』제1집 卷1)
3. 崔秉軾(1867~1928) <登矗石樓>(칠언율시) … (『玉澗集』卷1)
4. 金昌淑(1879~1962) <矗石樓次板上韻>(오언율시) … (『心山遺稿』卷1)
5. 鄭 栻(1683~1746) <義巖>(칠언율시) … (『明庵集』卷1)
6. 李止淵(1777~1841) <義妓祠>(칠언절구) … (『希谷集』卷1)
7. 朴致馥(1824~1894) <論介巖>(오언칠십구) … (『晚醒先生文集』卷3)
8. 金澤榮(1850~1927) <義妓歌>(오언절구) … (『韶濩堂詩集』卷2)
9. 黃 玟(1855~1910) <義妓歌>(칠언율시) … (『梅泉集』卷3)
10. 安鍾彰(1865~1918) <義妓巖>(오언십구) … (『希齋集』卷1)
11. 金昌淑(1879~1962) <義妓巖>(오언절구) … (『心山遺稿』卷1)

앞의 시 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 배경을 통하여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고 감회에 젖는 懷古的 시 편과, 다른 하나는 의기 논개의 생애를 통한 그의 節行을 보다 적극적으로 칭송·추모하는 시 편 들이다.

(1) 懷古詩類

회고적 성격을 띤 시 편들은, 주로 晋州城을 끼고 한맺힌 역사를 간직한 채 도도히 흐르는 南江, 남강변 험준한 절벽 위 義巖에서 의연하게 節義를 단행한 일, 그위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矗石樓, 그리고 논개의 절의를 기리는 義妓祠 들을 통하여 논개의 삶과 정신을 표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축석루는 진주 일대의 절경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이름있는 누각으로서 예로부터 시인·유객들의 발길이 잦던 곳이다.

축석루에서 회고하다
矗石懷古

바다 동쪽 오랑캐를 바라본 지 그 오랜 세월,

붉은 누각은 높고 멀리 산과 언덕을 베었네.
 예날의 그 물결 위엔 꽃같은 가인의 춤이 어리고,
 단청 동자기둥엔 장사의 노래 길이 남았네.
 전쟁터의 그 봄바람은 초목을 휘감고,
 쓸쓸한 성의 밤비에 물안개 불어나네.
 지금도 사당에는 아름다운 영혼이 남아있는 듯,
 삼경에 촛불 켜고 강신술을 올리네.

| | |
|---------|---------|
| 蠻海東瞻日月多 | 朱樓迢 枕山阿 |
| 花潭舊照佳人舞 | 畫棟長留壯士歌 |
| 戰地春風回艸木 | 荒城夜雨漲煙波 |
| 只今遺廟英靈在 | 銀燭三更酌酒過 |

(『與猶堂全書』 제1집 卷1)

茶山 丁若鏞(1762~1836)이 19세 때 그의 장인 洪和輔의 청에 따라 <晉州 義妓祠記>를 지었다. 그의 장인은 그무렵 慶尙右道 兵馬節度使의 관직으로 임지가 진주인데, 다산이 그를 뵈러 갔을 때 마침 축석루와 논개사당을 새로 보수공사하였고, 다산의 훌륭한 문장을 빌어 그것을 기념하였던 것이다. 이 詩도 이때 축석루에 올라 회고하며 읊은 것으로, 記文의 내용을 살펴 보면 시의 감회도 저절로 전달될 것이다. 그 記文은 다음과 같다.

<옛날 왜적들이 진주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일이다. 기생으로서 의로운 여인(논개)이 있었는데, 왜장을 유인하여 강 가운데에 바위 위에서 마주 춤을 추었다. 바야흐로 춤이 어울어지자, 그녀는 왜장을 껴안고 강물 속에 몸을 던져 같이 죽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당이다. 아! 어찌 장하고 장하며 훌륭한 부인이 아니던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과감히 적장을 죽이고 조국에 몸을 바쳤으니, 이로써 국가와 민족의 의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찬란히 빛나게 되었으니, 이는 한 城의 실패짐으로 문제시 될 일이 아니다...>

진주성 싸움에서 축석루가 삼장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을 다짐한 유적의 현장이라 한다면, 義巖은 논개의 절의를 상징하는 유적으로서, 이 둘은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의절의 주체로서 삼장사와 논개의 순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새로 단청된 축석루의 동자기둥에서 삼장사의 기상을 느끼고, 남강

물결 위에서 의기의 춤추는 모습이 남아있는 듯한 감회에 젖는다. 또한 義妓를 추모하는 사당에서는 그의 거룩한 영혼이 느껴지는 듯하다고 술회하고 있다.

회고시들이 대개 축석루를 배경으로 하고있는 것은 현판의 운에 따라 題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시를 보자.

축석루 현판의 운을 따라
巖石樓次板上韻

지난 세상 묻고자 하나 강물만 동으로 흐르고,
저물어가는 모래톱에 갈매기만 외롭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충신은 목숨을 던지지만,
시절이 평화로울 때 시인은 누각에 의지했다.
붉게 떨어지는 바위 꽃은 장한 혈기로 뭉쳤고,
푸르른 강풀에는 의로운 기생의 수심이 서렸네.
태평한 성대에는 책이 묵고 검이 녹스나니,
큰 목소리 한 곡조로 마음껏 놀아보세.

| | |
|---------|---------|
| 往塵欲問水東流 | 只見沙鷗立暮洲 |
| 世亂忠臣踏死地 | 時平騷客倚高樓 |
| 巖花紅落鍾雷血 | 江草青留義妓愁 |
| 聖代居然書劍老 | 浩歌一曲恣遨遊 |

(『濂湖文集』 卷1)

시인 濂湖 許澮(1758~1829)은 명승지 축석루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축석루는 누각으로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곳을 찾은 시인들은 자연히 거기서 의암을 만나게 되고, 논개의 절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 축석루에 오른 유객 중에 의암을 노래하지 않은 자가 있었던가? 그만큼 의암에서의 논개의 절행은 이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국운의 존폐를 눈앞에 둔 한 여인의 근심이 붉은 꽃(紅花)으로 푸른 강(靑江)을 물들였고, 그 절의로써 오늘 이 시인은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감회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의로운 기생 논개는 분명 장한 혈기로 뭉쳐진 한 떨기 붉은 꽃이다. 그래서 그는 초개같이 푸른 강물 위에 꽃잎을 날렸던 것이다. 푸른 물결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미래의 상징이요, 떨어진 꽃잎은 우리들 마음 마음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논개의 상징임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2) 論介의 生涯에 대한 積極적 詩文

의기 논개의 절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찬양·칭송하는 시 편들은, 주로 長水에서 출생, 천부적으로 타고난 貞節의 기품, 妓女로서의 논개의 운명적인 삶, 晋州 南江邊 義巖에서 왜장을 안고 죽은 과정, 사후 그녀의 절의를 기리는 義妓祠, 역사에 기리 빛날 영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시를 통하여 살펴 보자.

의암에서
義巖

형세의 빼어남이 남쪽고을에서 으뜸인데,
의로운 여인의 자취가 이 강가에 남았구나.
천 년의 슬픈 원한 강물결도 흐느끼고,
만고의 아름다운 이름 바위에 까지 남았구나.
적막한 외로운 성 구름은 산골에 흩어있고,
쓸쓸히 지는 낙엽, 달은 가을을 머금었네.
바람을 맞고 이렇게 우뚝 섰자니 마음이 저려와,
어렴풋이 먼 데 푸른산 보며 나루에서 눈물짓네.

| | |
|---------|---------|
| 形勝南州第一區 | 義娥遺蹟此汀洲 |
| 千年哀怨江波咽 | 萬古芳名石面留 |
| 寂寂孤城雲銷峽 | 蕭蕭墜葉月籠秋 |
| 臨風最是傷心處 | 翠黛依稀泣渡頭 |

(『明庵集』 卷1)

이 시는 朝鮮朝 肅宗에서 英祖 간의 학자 鄭栻(1683~1746, 자는 敬甫, 호는 明庵, 본관은 晋州)의 작품인데, 그는 동지중추부사 大亨의 손자로, 일찍이 과거보러 나갔다가 丙子胡亂 때 金之純이 쓴 斥和疏를 읽고 당세에 영리를 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항상 패랭이를 쓰고 명산을 유람하다, 만년에는 頭流山 속에 암자를 짓고 여생을 마친 사람이다.

더욱이 시인은 진주의 여러 선비들과 함께 논개의 포상 문제를 제기하기 위

하여 순국 사실에 관한 典據(柳夢寅의 『於于野談』)를 수집하여, 당시 집권 세력과 가까운 우병마사 崔鎭漢에게 제공(1721, 경종 원년)한 사람이었기에, 의기 논개에 대한 그의 추모의 정이 얼마나 각별했는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정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鄭文學의 從曾孫이자 親明排淸派의 인물인데, 국운이 明斥淸和로 기울어짐에 모든 것을 버리고, 전국 명산대천을 行雲流水하다 오늘 남강변 의암에 서고 보니, 그날의 貞烈에 새삼 감개가 무량하여 가슴이 저러온다. 조선의 한 가녀린 여인이 지금 내가 서있는 이 바위에서 왜장을 안고 남강물에 몸을 던져 순국한지 어언 천 년이 흘렀건만, 그 아름다운 이름과 거룩한 정신은 아직도 이 남강물과 의암에 새겨져 오늘에 남아 전하고 있음에 감격하는 것이다.

의기의 절행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시편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압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朴致馥(1824~1894, 자는 致馥, 호는 晩醒, 본관은 密陽)이 지은 <論介巖>이라는 작품이다. 이 詩는 序詩에서 촉석루에 서린 장사들의 충혼, 둘째 시에서는 논개의 절의, 셋째 시는 총 70구로, 출생에서 사후까지 논개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그려낸 한편의 서사시이다. 셋째 시는 다시 4부로 나뉘는데, 제1부는 논개의 출생·성장과 성품, 제2부는 진주성 전투의 참혹함, 제3부는 논개 절의의 결행과 왜장의 죽음, 제4부는 논개 정신의 영원함 등 네 부분으로 되어있는 長詩이다. 그러면, 직접 시를 살펴 보면서 그 가운데 표출된 논개의 생애를 조명하여 보자.

논개암에서
論介巖

(序詩) : 본 시의 배경, 진주 남강 위에 서있는 촉석루와 의암의 장엄한 서경, 거기에 서린 충성스런 영혼을 기림.

남강물은 만길이나 깊고,
강바위는 천길이나 높구나.
그 위에 백척의 높은 누각 있어,
장사들의 충혼이 머리카락 솟게 하네.
江水萬仞深 江巖千丈直
上有百尺高樓 壯士忠魂髮衝冠

(둘째 시) : 기녀의 몸으로 왜장을 죽인 絶行, 그로 인하여 왜적의 간담을 서늘케 했음을 칭송함.

살아서 욕됨이 미치지 않고자 하더니,
미천한 몸이 진실로 욕을 보게 되었네.
왜장 하나 죽인 일들이라 말하지만,
현인들은 오직 왜적 하나 만이라고 하지 않네.
작은 여인이 왜장하나 죽인 것이,
왜적들의 자만스런 웃음 그치게 했네.

| | |
|---------|---------|
| 生不欲被汚 | 鱗介誠爲辱 |
| 等是死殲一倭酋 | 尙賢已莫道壹倭 |
| 少人殲壹倭 | 倭且休堪笑 |

(셋째 시) : 내용상 본장에 해당되는 장시. 4부로 구성.

제1부 : 창루의 풍경과 기녀가 된 논개의 운명, 그리고 천성적인 그녀의 貞諒한 기품을 묘사함.

여인들이 노래하며 걸어다니니,
오고가는 발길에 강둑 풀이 노랗구나.
구름은 등실 떠 오동나무 꽃을 어루고,
요염한 여인이 창문으로 고개 미네.
집집마다 천자의 아들 돈쓰듯,
노래와 웃음, 다투어 봄을 간지럽히네.
첩(논개)은 태어나서부터 어려움에 떨어져,
몸은 창루 가에 맡겨졌네.
꽃다운 나이 열여섯인데,
다만 우뚝한 자태 가련하구나.
천성은 본디 곧고 미빠서,
내치고 싶어도 결코 버릴 수 없다네.

| | |
|-------|-------|
| 步出閨閣曲 | 井井黃蘗塢 |
| 英英刺桐花 | 冶豔當窗戶 |
| 千家錢樹子 | 歌笑爭春妍 |
| 妾生墮髮彫 | 寄身娼樓邊 |
| 芳年屬破瓜 | 多姿最可憐 |

天性苦貞諒

欲罷不能忘

제2부 : 임진왜란 왜적의 침략으로 도성이 도륙을 당하여 종묘와 사직이 위태롭고, 진주성도 왜적의 침공으로 6만의 城民이 같은 날 참욕하게 죽임을 당한 일을 묘사.

나라의 운명이 임진·계사년의 간난 속에서,
천한 오랑캐(왜구)에게 오래토록 짓밟혔네.
관리들 사로잡혀 욕을 당하고,
종묘와 도성도 송두리째 타버렸네.

날 저물어 기둥에 의지하며 생각에 잠긴데,
긴 칼 끝에 초생달 모아드네.
고립된 성의 담장이 무너지니,
견고한 진주성도 지킬수가 없구나.

슬프다! 육만의 성민들이여,
관민이 한 날에 죽음을 맞았네.

| | |
|-------|-------|
| 天步辰巳 | 醜虜長蹂躪 |
| 衣冠辱俘據 | 廟都隨灰燼 |
| 日夕倚柱念 | 蛾眉攢脩劍 |
| 孤城乏儲胥 | 坐失金湯險 |
| 哀哀六萬人 | 同日爲猿鶴 |

제3부 : 진주성을 함락시킨 왜적이 축석루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논개는 그 자리에 들어가 왜장을 유인, 함께 바위 아래 강물로 뛰어드는 장면을 묘사.

탐욕한 왜장은 걸상에 의탁한 채,
술에 흠뻑 취해 방자히 지껄이며 기롱한다.
미련스레 꺾꺾웃으며 짐승처럼 나대더니,
끌어내어 매질하며 제멋대로 음탕하다.
단칼에 죽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욕되게 목숨을 마친다면 무슨 도움이 되리오.
피를 내고 곧 일어나서,
기쁘게 그를 따라 춤을 추네.
높은 누각은 시 읊기에 좋지 못하나,
강가의 바위는 크고 넓어 믿을만 하단다.
손을 끌고 가면서 원하여 말하기를,

어두워질 때까지 노릴자 하더라.
 어리석은 왜놈은 이미 정신이 녹아서,
 그 말 따라 응락을 하였네.
 위험한 바위는 절벽 깎아 만들었나,
 위에는 겨우 소반하나 놓을만 한데,
 아래로는 천 길 못이 있네.
 흐르는 물결 힐끗보니 맑고 잔잔한데,
 섬뜩한 무서운 생각에 와락 끌어 안긴다.
 몸을 가까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서는,
 그 허리를 얹어 끌어 안는다.
 힘을 써 갑자기 발을 날리니,
 만길 떨어져 풍덩 소리났네.

| | |
|-------|-------|
| 頑酋據胡牀 | 縱酒恣驩諠 |
| 駢渠牝牡性 | 挑撻肆淫黷 |
| 一劍諒非難 | 經濟竟何益 |
| 作計乃爾立 | 忻然隨俯仰 |
| 高樓正不韻 | 江石洵訐廣 |
| 願言攜手去 | 徜徉窮曛旭 |
| 癡奴魂已銷 | 隨語聲應諾 |
| 危巖陡戍削 | 上可容盤礴 |
| 下有千仞潭 | 流睇澹清漣 |
| 強忍嚴閃意 | 近身稍向前 |
| 緊緊抱其腰 | 用力儻舉趾 |
| 颯颯萬丈下 | |

제4부 : 논개의 영혼을 위로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論介와 桂月香의 절의를 읊음.

나와 너 함께 죽었으니,
 추한 뼈는 상어와 악어의 먹이되고,
 아름다운 넋은 용궁으로 모셨네.
 용궁은 바다에 통한다 하니,
 멀리 대동강(패강)과도 통하겠네.
 대동강에도 의로운 기생이 있어,

왜놈의 배를 칼로 찢었다네.
 빛나는 강물 얇은 듯 깊은,
 대동강은 서북으로 흐르네.
 당대에 빼어난 아름다운 두 여인이 있어,
 어여쁜 절개! 그 이름, 영원하리라.

| | |
|-------|-------|
| | 吾與爾共死 |
| 醜骨餌鮫鱔 | 香魂侍龍宮 |
| 龍宮達于海 | 遙與滌江通 |
| 滌上有義妓 | 剗刃奴腹中 |
| 菁江淺如泓 | 滌水西北流 |
| 絶代兩佳人 | 姘節名不休 |

(『晚醒先生文集』卷3)

앞의 시는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리라 본다. 각 시 편의 구구절절에 배어있는 의기 논개의 삶은 시인에게 실재하는 역사로 인식되어, 진솔한 감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셋째 시의 4부에서 보이는 대동강 가의 의기는 임란때 평양성 전투에서 金景瑞를 도와 왜장 小西飛를 꼬여서 죽임으로써 결정적인 공을 세운 桂月香을 말한다. 김경서(1564~1624)는 壬辰년 평양 방위전에서 守灘將으로 대동강을 건너는 적병을 막았으며, 癸巳년에는 李如松의 明軍과 함께 빼앗겼던 평양성을 탈환하여 공을 세운 무장이다.

壬辰倭亂史에서 여인으로서 공을 세운 자가 어찌 이들 뿐이겠는가? ‘관기로 서 왜적을 만나 욕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죽은 자를 이루다 기록할 수 없다’고 柳夢寅은 『於于野談』에서 말한 바 있다. 위의 시 가운데 등장하는 계월향의 절의는 논개와 더불어 역사에 영원히 남을 아름다운 이름들이다.

논개의 출생지를 구체적으로 다름으로서 그의 삶의 족적을 확연하게 보여준 시 편이 있다.

시인 黃玑(1855~1910, 자는 雲卿, 호는 梅泉, 본관은 長水)은 학자·우국지사로서 1885년(고종 22) 생원시에 장원했으나 시국의 혼란함을 개탄하고 향리에서 지냈다.

의로운 기생을 노래하다
 義妓歌

풍천나루의 강물이 아직도 향기로우니,
 머리와 수염을 깨끗이 씻고 의로운 여인에게 절하노라.
 아름다운 성품으로 어떻게 적장을 죽였던가?
 죽음을 각오한 채 거룩한 뜻을 단행했네.
 장계의 연로자들은 고향사람이라 자랑스러하고,
 촉석루에서는 단청하고 순국함을 제사지낸다.
 화려한 왕조 돌아보면 인물이 많았다 하지만,
 기생이었어도 오랜 세월 그 이름 한결같이 빛나리.

| | |
|---------|---------|
| 楓川渡口水猶香 | 濯我鬚眉拜義娘 |
| 蕙質何由能殺賊 | 藁砧已自使編行 |
| 長溪父老誇鄉產 | 麤石丹青祭國殤 |
| 追想穆陵人物盛 | 千秋妓籍一輝光 |

(『梅泉集』 卷3)

풍천(楓川)은 長水 任縣 內面의 마을이다. 논개가 풍천 태생임은 1872년(고종 9)에 편간된 『湖南邑誌』 가운데 <長水縣邑誌> 節義篇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논개가 장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기록으로, 이보다 앞서 1800년(순조 즉위)에 편간된 『湖南節義錄』과 1839년(헌종 5)에 편간된 『湖南三綱錄』에도 기록되어 전한다.

매천이 우국의 심회를 안고 찾은 곳이 바로 논개의 生長地인 長水 楓川땅이다. 그는 이 곳에서 논개의 忠烈에 큰 감화를 받는다. 시인은 풍천에 들러 몸을 정갈하게 하고 義妓를 향해 경건히 배향을 하고 선다. 국가 존망의 위기에 한 목숨 아까와 하지 않고 기꺼이 나라에 바치겠다는 그 거룩한 뜻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의기 논개의 장한 죽음은 장수 온 고을의 자랑이며 영광이요, 나아가 이 나라의 큰 빛이 되어 그 이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칭송하였다. 그 후 매천은 결국 1910년(융희 4) 경술년의 國恥에 통분하여 絶命詩 4편을 남기고 자결하고 만다. 어찌보면 우국지사 매천의 의분의 절명은 풍천 땅의 논개(한 여인의 죽음)에서 그 근원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3. 結 語

지금까지 詩文을 통해 論介의 생애를 조명해 보았다. 논개를 추모·찬양한 시편들은 대략 12 편으로, 이 시편들을 둘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진주성을 끼고 흐르는 남강, 남강변 절벽 위의 의암, 의암에서 절의를 단행한 논개, 언덕 높은 곳에 있는 축석루, 그리고 논개의 절의를 기리는 의기사 등 주로 자연적 배경을 통하여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회고하는 시편들과, 다른 하나는 주로 장수에서 출생, 천성적인 정량한 기품, 기녀로서 논개의 운명적인 삶, 남강변 의암에서 왜장을 안고 죽은 사실, 사후 그녀의 절의를 기리는 의기사, 역사에 기리 남을 그의 정신 등 논개의 순국의 절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칭송함으로서 그의 생애(삶)를 부각시키는 시편들이다.

논개는 長水 楓川에서 출생하여, 천부적인 정숙한 성품을 지녔으며, 성장하여서는 관기가 되어 불우한 운명적 삶을 살다가, 국운이 위태로왔던 壬亂 때는 젊은 나이로 진주성 南江변 義巖에서 아낌없이 몸을 던져 구국의 절의를 실천한 義妓이다. 그를 향한 시인들의 어떠한 찬사로도 그의 업적에 대한 만족한 보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도 논개의 순국의 정신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임을 시인들은 끝없이 칭송하고 있다.

다음의 樹州 卞榮魯(1898~1961)의 시 <論介>로써 본고를 끝맺을까 한다.

論介

거룩한 憤怒는
宗教보다도 깊고
불붙는 情熱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릿답던 그 娥眉
높게 흔들리우며
그 石榴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江물은
길이 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魂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朝鮮의 마음』, <新生活> 3호, 1923년 4월호)

논개의 전설에 대한 구비문학적 이해

임 채 용
(순천대학교 교수)

1. 머리말

구비 문학(口碑文學)은 말로 전하는 문학 장르의 일종이다. 그런데 구비 문학은 기록 문학(記錄文學)만큼 중요시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문학은 글로 된 것이라야 한다는 관습(慣習)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기도 했었고, 민속학(民俗學)의 소관(所關)이라고 하면서 그 쪽으로 밀어 두기도 했다. 구비 문학을 통해 문학 일반의 본질(本質), 존재 양상(存在樣相), 기능(機能) 등에 관한 이해를 가다듬고 이론(理論)을 반성(反省)하자는 것이 구비 문학을 문학으로 연구하면서 노리는 바인데 이러한 성과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나날이 축적되고 있다.

구비 문학이 기록 문학에 수용되어 변모된 양상도 구비 문학 연구에서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구비 문학이 기록에 올라 전하는 자료도 구비 문학 연구에서 계속다루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구전(口傳)되고 있는 설화(說話), 민요(民謠), 무가(巫歌), 민속극(民俗劇) 등은 구비 문학 연구가 아니면 수집(蒐集)하고 정리(整理)하며 해석(解釋)하고 평가(評價)할 수 없다. 구비 문학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는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구전되고 있는 자료를 특히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다.

구비 문학 연구는 자료 조사를 무엇보다도 긴요한 과제로 삼는다. 자료를 조사해야 비로소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실제로 조사하지 않고서는 구비 문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고 연구해야 할 과제도 발견하기 어렵다. 더구나 구비 문학 연구가 시작된 시기부터 지금까지가 전래된 자료를 풍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고, 앞으로의 사정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료 수집의 의의(意義)는 그만큼 더 커진다.

의암(義巖) 논개(論介)는 목숨을 바쳐 충절(忠節)을 지킨 그 값진 죽음으로

인해 시대를 넘어 겨레와 함께 살고 있는 인물(人物)이라 할 수 있다. 의암 논개를 주인공으로 하여 구전되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경남(慶南) 진주(晉州)와 전북(全北) 장수(長水)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散在)하는 여러 기념물(記念物)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것만 하더라도 진주성(晉州城) 축석루(矗石樓) 경내(境內)에 건립되어 있는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光海君 12년)’과 ‘의암사적비명(義巖事蹟碑銘)(景宗 2년)’, 그리고 ‘의기사(義技祠)(純祖 24년)’를 비롯하여 장수에 건립되어 있는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鄉豎名碑)(憲宗 12년)’, ‘의암사(義巖祠)(1956년)’, ‘의암주논개랑생장향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郎生長鄉事蹟不忘碑)(1960년)’, ‘의암주논개상(義巖朱論介像)(1980년)’, ‘의암주논개유허비(義巖朱論介遺墟碑)’ 등을 꼽을 수 있다. 더구나 장수군에서는 해마다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대축제(大祝祭)의 장(場)으로 ‘의암제(義巖祭)’를 행해 오고 있다. 이같은 여러 기념물에 못지 않게 오랜 세월에 걸쳐 구전되는 이야기 또한 의암 논개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의암 논개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상(歷史上) 실제로 있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 까닭에 그만큼 역사적 성향(性向)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2. 구비 문학적 이해

전설(傳說)의 형성은 사실과 사실의 과장(誇張)이나 와전(訛傳)에 의한 전설적 전환이 함께 이야기되는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사실의 과장이나 와전 그 자체가 곧 전설은 아니다. 아무리 생애(生涯) 자체가 특이(特異)해서 널리 관심을 끄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사실의 과장에만 머문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전설다울 수는 없는 것이다. 전설로의 전환이 납득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승적(傳承的)인 유형(類型)도 받아들이고 작품 구조(作品構造)로서의 유기적(有機的)인 질서(秩序)도 갖추어야 하며, 창조자(創造者)와 수용자(需用者)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폭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사실은 그것대로 기억된다고 해도 사실에 구애되지 않는 전설적 창작이 쉽사리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의암 논개의 전설에 대해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구조적 이해(構造的 이해)란 이야기 한 편이 그 나름으로 지니고 있는 전승적인 유형을 알아 보는 것이며, 나아가 작품 구조로서의 유기적 질서를 찾

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이해는 의암 논개의 전설 역시 구비 서사 문학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작품 전개 시간적 순서에 따른 구조, 다시 말해서 순차적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前提)로부터 출발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 논개의 전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친이 훈장(訓狀)이었다.

1. 부친이 훈장(訓狀)이었다.

(나) 부부가 아들을 잃고 기도한 끝에 딸을 얻었다.

1. 대룡(大龍)이라는 아들이 죽었다.

2. 영각사(靈覺寺)에 들어가 기도했다.

3. 태몽을 꾸었다.

4. 딸을 낳았다.

5. 갑술년(甲戌年),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논개라고 지었다.

(다) 인물이 출중했다.

1.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2. 인물이 좋았다.

3. 조상 묘소가 명당이라서 인물이 낳다고 했다.

(라) 부친이 돌아가신 후 숙부에 의해서 팔리는 몸이 되었다.

1. 부친이 병으로 돌아가셨다.

2. 숙부가 돈을 받고 최풍헌에게 팔았다.

3. 모녀가 외가로 도망했다.

4.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무죄 방면되었다.

5. 의지할 곳이 없었다.

(마) 최경희(崔慶會)의 구원을 받았고, 뒤에 후실(後室)이 되었다.

1. 최경희 현감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2. 최경희 부부의 배려로 내아(內衙)에서 생활했다.

3. 최경희 후실이 되었다.

(바) 최경희를 따라 진주성 전투(晉州城戰鬪)에 참가했다.

1.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났다.

2. 최경희가 진주성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3. 최경희를 따라 진주로 갔다.

4. 최경희 장군이 전사했다.

(사) 원수를 갚고 죽었다.

1. 원수를 갚기로 결심했다.
2. 기생(妓生)으로 위장(僞裝)해서 승전연(勝戰宴)에 참가했다.
3. 왜장(倭將)을 유인했다.
4. 원수를 갚고 자신도 죽었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름 아닌 일대기(一代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논개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인이 되고, 죽음에 이르는 생애의 전과정을 나타내는 시간이 작품의 전개적 질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앞의 각 내용의 성격을 좀 더 따져 보기로 하자.

먼저 앞의 내용 (가)는 논개의 부친이 선자(先子)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훈장(訓長)으로 초대를 받아 이주하게 되었다거나 과거(科擧)에 급제했다거나 하여 혈통이 훌륭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앞의 내용 (나)는 논개의 부모가 장성한 아들을 잃고 후사(後嗣)를 잇기 위해 기도(祈禱)했으나 딸을 낳게 되었다고 했고, 그 딸의 사주(四柱)가 너무도 기이(奇異)했기에 이름을 논개(論介)로 지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논개의 출생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앞의 내용 (다)는 논개가 어려서부터 용모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글 공부를 통해서 그 재주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하고, 조상 묘소가 명당(明堂)이었다고 하는 그럴 듯한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으니, 이는 논개가 범인(凡人)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 났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앞의 내용 (라)는 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어린 논개가 불량한 숙부에 의해서 인신 매매(人身賣買)를 당하게 되고, 이를 피해 외가(外家)로 도망했다가 재판에 회부되는 등 논개에게 밀어닥친 뜻밖의 고난(苦難)을 보여준다. 앞의 내용 (마)는 의지할 곳 없는 어린 논개를 최경희(崔慶會)가 구출 양육자로 하여 불의의 고난을 극복해 간다는 것이며, (바)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전란으로 인해서 다시 논개가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사)는 논개가 죽음을 각오한 끝에 남편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인데, 이는 논개가 투쟁을 통해서 위기(危機)를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자(勝利者)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의 내용 분석의 결과는 이른바 ‘영웅(英雄)의 일생(一生)’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 (나)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했다.
- (다)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 났다.
- (라) 어려서 기아(棄兒)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 (마)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 (바) 자라서 다시 위험에 부딪혔다.
- (사)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

의암 논개 전설은 임진왜란 때 왜장을 끌어안고 진주(晉州) 남강(南江)에 투신(投身)한 것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논개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남강에 투신할 때의 논개는 나이 어린 부녀자에 지나지 않았다. 지체 높은 분들에게 흔하게 있는 문집(文集)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처지이고 간단한 행장(行狀)이나 자신의 생각을 담은 짤막한 서간문(書簡文) 하나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꾸며낸 이야기는 모두 허황(虛荒)된 것이라 하고 굳이 믿을 수 있는 문헌(文獻)만을 고집한다면, 논개같은 인물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한 까닭에 논개라는 인물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전해 오는 이야기’는 참으로 소중한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암 논개 전설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다른 한 측면은 그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전설적 전환을 겪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의암 논개 전설의 형성(形成)과 발전(發展), 또는 쇠퇴(衰退)에 관해 일정한 범위에서의 추론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의암 논개 전설을 어떤 계기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전승 과정에서의 변이(變異)에 작용한 현실적 요구는 무엇이었을까? 일반적으로 전설 형성의 처음 단계는 사실(事實)과 사실의 과장(誇張)이나 와전(訛傳)에 의한 전설적 전환이 함께 이야기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실제 사건이라고 할 논개의 남강 투신은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였다. 그리하여 틀림없이 처음 이를 목격한 현지 사람들에게 의해서 얼마 동안 실제 사건이 화제가 되었고, 그후 실제 사건에 과장이나 와전이 더해져서 전설적 전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논개가 죽은지 얼마되지 않은 때에 류몽인(柳夢寅, 1551-1623)의 『어유야담(於于野談)』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는 사실 이야기와 사실의 과장이나 와전에 의한 전설적 전환을 함께 살필 수 있게 해준다.

논개는 진주의 관기(官妓)였다. 계사년(癸巳年)에 창의사(倡義

使) 김천일(金千鎰)이 진주성(晋州城)에 들어와 왜적(倭賊)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陷落)되자 군사들은 패(敗)하고 백성들은 모두 죽었다.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 하고 축석루(矗石樓) 아래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바위 밑은 깊고 깊은 강물이었다. 왜병(倭兵)들은 이를 바라보고 좋아하면서도 감히 접근하지 못 했는데 오직 왜장(倭將) 한명이 당당하게 앞으로 내달았다. 논개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하자 왜장은 그녀를 꺾으며 이끌었는데 논개는 마침내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이같은 이야기는 류몽인이 현지 사람들에게서 직접 채록(採錄)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면서 아울러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전설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것도 섞여 있다고 보여진다.

류몽인은 진주성이 함락된 직후 선조(宣祖) 26년 윤(閏) 11월에 설치된 무군사(撫軍司)의 관원이 됨으로써 그 자신이 직접 삼남 지방(三南地方)에 내려갈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2월에는 세자(광해군)를 따라 진주(晋州)·금산(錦山) 싸움에서 죽은 사람들의 명부(名簿)를 작성하고 그 유가족들에게 면역첩(免役牒)과 식량(食糧)을 지급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그가 무군사(撫軍司)의 관원으로서 군사의 모집과 훈련 및 보급 문제 뿐 아니라 전몰 가족(戰歿家族)을 조사 위문하는 일까지 하였다면, 이같은 기회에 논개가 왜장을 죽이기 위해 스스로 남강에 투신 하였다는 사실에도 마땅히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같은 해에 삼도순안어사(三道巡按御使)에 임명되었던 것이니 이 기회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전투가 치열했을 뿐 아니라 6만여 군민이 무참히 살육(殺戮) 당하고 왜병들의 약탈로 거의 초토화(焦土化)된 진주성에 들러 그간의 사정을 직접 견문(見聞)했을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류몽인이 『어우야담』에 기록한 이야기는 진주성민들 사이에서 구전되는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 않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여기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의암 논개가 왜장을 끌어 안고 남강에 투신해서 죽었다는 실제 사건을 말한다. 사건 자체가 워낙 예사롭지 않은 데다가 충격적이어서 그것만으로도 화제(話題)가 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전달을 위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백성의 입에서 입을 거쳐 계속 전승되기 위해서는 전설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설적 전환을 위해서는 그

럴 만한 동인(動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백성의 입장에서 우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신분 문제(身分問題)이다.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단계에서는 논개의 신분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겠으나 전설적 전환을 거쳐 전승을 담당해야 하는 백성의 입장에서 논개의 예사롭지 않은 죽음과 함께 신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선 논개가 기생(妓生)이라고 하는 점은 백성의 입장에서 매우 흥미있는 일이었으며, 이 때 논개가 진주 사람이 아니고 외래인(外來人)이었다는 사실은 신분에 관한 한 보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자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란(戰亂)의 와중(渦中)에서 진주(晉州) 사람이 아닌 논개에 대해 그 신분을 진주성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남강투신 사건 이후에 새로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아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개의 신분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한계(限界)를 지닌 문제였으며, 결국 기생으로 알려진 신분은 일면적 의의를 지니는데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설적 이야기는 기생이라는 미천한 신분의 논개가 끝내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다.

이에 다시 류몽인은 『어우야담』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임진왜란에 관기(官妓)로서 왜적을 만나 욕을 당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논개 한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었으나, 그 이름들을 많이 잊어버렸다. 관기는 모두 음탕한 창녀(娼女)들이라고 해서 정렬(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덕화(德化)를 입은 인물이라고 하겠거니와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충(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위에서 관기(官妓)를 ‘정렬(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사대부(士大夫)들의 일반적인 생각일텐데 류몽인이 이를 비판(批判)하고 ‘충(忠)’이라 칭한 것은 아마도 진주성민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인 듯하다. 이렇게 볼 때 전설적 전환을 거친 의암 논개 이야기는 전란이 남긴 상흔(傷痕) 속에서 부끄럽게 살고 있는 진주성민들에게 일종의 위안(慰安)인 동시에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이야기였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류몽인의 『어우

야담』전문을 국역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논개는 진주의 관기였다.
- ② 창의사 김천일이 계사년(1593년)에 진주성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패하여 성이 함락 되고, 백성들은 모두 죽었다.
- ③ 논개는 몸단장을 하고 축석루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왜병들은 이를 바라보고 좋아했지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 ④ 오직 한 왜장이 당당하게 앞으로 내달아 오자, 논개는 웃음을 띄우고 맞이하니 왜장이 그녀를 꺾어 내려 하였다.
- ⑤ 마침내 논개는 그 왜장을 끌어 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 ⑥ 임진란에 논개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관기로서 왜적에게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기록하기 어려우며, 그 이름을 거의 모두 잊어버렸다.
- ⑦ 관기는 모두 음탕한 창녀들이라고 하여 정열로 일컫기가 불가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로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녀 또한 성덕의 교화를 받은 사람 중의 하나이다.
- ⑧ 나라를 등지고 왜적에 따르기를 거부하니 어찌 충성심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참으로 애닦은 일이다.

논개 설화는 두 의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바, ①에서 ⑤까지는 논개의 일화를 중심으로 한 서사체이며, ⑥에서 ⑧까지는 이러한 서사체(敍事體)에 대한 작가의 논평이다. 논개 일화를 중심으로 한 서사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 논개의 인물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즉 ①에서 ⑤까지는 각각 하나의 독립된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단순 구조의 에피소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이 에피소드는 논개라는 특정 인물이나 에피소드 그 자체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특정한 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단순하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첫번째 의미 단락은 논개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녀가 대신하고 있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짜여져 있다. 이러한 서사체에 대한 작가의 논평이 ⑥에서 ⑧까지이다. 작가의 논평은 관기라는 신분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행위와 국난 속에서 가져야 할 이상적인 행위를 준거로 논개라는 특정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논개 설화는 기본적으로 ① ‘관기/정열’의 대립

적 의미 체계를 통해 신분과 신분적 행위 간의 관계를 규범화 하고, ② 그런 규범화된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를 '열(烈)'이라고 일컫을 수 있는 행동의 실천에 두고 있다. 말하자면, 논개 설화는 논개라는 기생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기준으로 신분과 '열(烈)'을 설정하여 신분 질서와 충렬(忠烈)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그 기록자 류몽인은 논개 설화를 '창기편(娼妓篇)'이 아니라, '효열편(孝烈篇)'에 수록하고 있다. 그는 관기는 관기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 있다는 전제 아래서 관기 논개의 행위를 창기(娼妓) 신분의 상징적(象徴的) 인물로서의 행위로 다루는 것이 아닌 '열(烈)'이라고 일컫을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한 사람의 모범적 행위(模範的行爲) 그 자체로 다루고 있다. 그는 인간의 행위는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신분에 따른 모든 행위를 지배하면서 초신분적(超身分的)인 절대 가치(絶對價値)를 지닌 것으로 '충렬(忠烈)'의 행위를 설정하여 인식하고 있다.

의암 논개 전설 형성은 논개의 생장지로 알려진 장수(長水)가 전승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는데, 논개의 생장지를 장수와 관련시킨 문헌 기록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난다. 순조(純祖) 원년(元年, 1800)에 간행한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에서 “기생 논개는 장수인(長水人)인데 최경희(崔慶會)가 좋아하였으며, 그를 따라 진주(晋州)로 갔다”고 한데 이어, 헌종(憲宗) 5년(1839)에 간행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에서는 “논개는 장수의 관기인데 진주병사 최경희가 사랑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또 헌종(憲宗) 12년(1846)에는 논개의 생장지를 기념하기 위해 장수에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鄉暨名碑)'를 건립하였으며, 고종(高宗) 9년(1872)에 간행한 『호남읍지(湖南邑誌)』 중 『장수현읍지(長水縣邑誌)』의 절의편(節義篇, 義妓論介條)에는 “의기 논개는 본현(本縣)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으로서 충의공(忠毅公) 최경희(崔慶會)가 현감(縣監)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하였다. 최공(崔公)이 진주병사(晋州兵使)로 임진란을 당했을 때 논개가 따라갔다”고 하였다.

이같은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의암 논개 전설 형성은 논개의 신분을 관기로 고착화(固着化)하고 있는 문헌 설화(文獻說話)와는 다른 방향에서 19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논개의 생장지인 장수 지역 사람들이 새로 전승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개의 후손(後孫)들은 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의암 논개의 전설 형성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암 논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실재(實在)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논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논개의 성격이나 행적에 대해서 자기대로의 소견(所見)을 가지고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며, 때로는 논란을 벌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어떤 근거나 제약 조건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장수 지역 사람들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의암 논개와 시간적으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으나, 동일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정서적으로는 거의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合理的)인 근거(根據)를 찾고 되도록이면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했을 것이다.

3. 사회적 이해 및 마무리

일반적으로 구전되는 이야기는 창조자와 수용자의 만남을 통해서 존재할 뿐이고, 그 순간을 떠나서 또는 그 둘의 만남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창조자와 수용자가 만나는 순간에 그 둘이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이 작품의 의미이자 작품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논개 설화는 류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이르러서 문자로 정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구비 전승되고 있다. 문헌 설화로서의 논개 설화는 논개라는 기생의 행위를 실례로 들면서 동시대 인간 행위의 평가 기준으로 신분과 ‘열(烈)’을 설정하고 신분 질서와 충렬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그 기록자 류몽인은, 인간의 행위가 신분과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그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초신분적인 절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충렬(忠烈)’의 행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논개 설화는 여성(女性)의 이상적(理想的)인 행동 양식(行動樣式)을 ‘정열(貞烈)’의 준거(準據) 틀로서 규범화(規範化) 하고 ‘충렬(忠烈)’을 그 궁극적인 가치로 설정한 교훈적(敎訓的)인 설화이다.

논개 설화의 의미화 과정은 허구(虛構)의 실사화(實事化)와 허구의 허구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정영과 정절, 충렬과 민족 의식을 주제화 하여 수직적 남녀 관계, 신분 질서 체계, 소박한 감정적 민족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논개 설화의 예술 형상화 과정은 논개라는 인물과 그녀의 행위에 동시적인 초점을 둬으로써 역사(歷史)와 문학(文學), 경험(經驗)과 허구(虛構) 간의 중간 영역인 전기적 문학(傳奇的文學)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물 전설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창조자와 수용자가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면서 이야기하기에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 인물 전설은 크게 보아 이야기 집단에 따라 달라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인물 전설을 이야기하면서 벌이는 논쟁은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립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인물을 평가하는 입장과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 그 성격이나 배경을 살펴 보는 것이 사회적 이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의암 논개 전설의 경우 대체로 그 논쟁은 기생이나 아니냐 하는 신분 문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것마저도 이념(理念)이나 가치관(價値觀)과는 상관없이 거의 지역적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의암 논개 전설은 신안 주씨(新安朱氏)라고 하는 한 가문(家門)의 선조(先祖) 이야기로 기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안 주씨 후손들이 자기 조상이 훌륭한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처음 의암 논개 이야기는 적장(賊將)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한 논개의 의거(義舉)를 목격한 진주성민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것이고, 이때 진주성민들은 논개의 후손인 신안 주씨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게 의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랜 세월을 걸쳐 구전되는 과정에서 의암 논개의 후손이라 할 사람들이 창조자나 수용자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했다는 사건 자체는 후손이나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게나 다같이 훌륭하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 견해가 일치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의암 논개 전설이 계층을 초월해서 강한 침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도 결국은 이와 같이 일치된 인식과 견해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암 논개의 후손들이 창조자나 수용자로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사정은 사뭇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의암 논개의 신분이 기생이나 아니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후손의 입장과 후손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이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암 논개 전설은 정렬(貞烈)과 충의(忠義)라는 사회 논리적(社會論理的) 의미로 널리 이야기되는 한편으로 신분 문제와 관련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후손의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자기

조상의 지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道理)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체로 사람들의 심리(心理)는 자기 조상에 대해 지체(肢體)를 높이려는 것이 예사인데 의암 논개의 경우 지체가 높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가장 미천(微賤)하다고 할 기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생 아닌 논개 이야기는 강한 전승력(傳承力)을 발휘하여 이제는 논개를 기생이라고 하는 이전의 이야기까지 기생 아닌 것으로 바꿔놓게 하였다. 그동안 사당(祠堂)을 세우고 생각(生家)을 복원하고, 또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대축제의 장(場)으로 해마다 ‘의암제(義巖祭)’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 등 장수 지역 사람들이 의암 논개에 대해 쏟고 있는 정성을 보더라도 그들이 기생 아닌 논개 이야기의 성립에 어느 정도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겠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생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의 성립에는 신안 주씨 후손 못지 않게 장수 지역 사람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이니, 이러한 사정은 앞서 역사적 이해를 통해서도 어느정도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안 주씨 후손과 장수 지역 사람들의 적극적인 역할로 의암 논개의 신분이 기생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되자, 애초에 의암 논개 이야기의 발생지라고 할 진주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전설 따위 구전되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허황된 것이라고 하면서 문헌 기록만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논개를 기생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 논개가 스스로 왜장들의 승전연에 참석하기 위하여 택했던 위장 신분이었다고 이해하는 한편, 의암 논개는 결코 기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의암 논개 전설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신분을 문제삼아 새삼스러운 논쟁을 벌이는 일은 좀처럼 보기 어려울 것이며 의암 논개의 구비문학적 이해의 측면에서도 이 점은 새로운 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義巖 朱論介 誕辰 422周年 紀念 學術세미나
論介의 生涯와 忠節 精神

발행 겸 편집인 : 김 진 영

발 행 처 : 장수문화원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

전화 (0656) 3 5 1 - 5 3 4 9

인쇄 : 1996. 11. 10

발행 : 1996. 11. 15

인쇄 : 선 명 출 판 사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3가 127-17

전화 (0652) 84 - 2878 · 0030

論介의 家系에 관하여

崔炳云 (전북대학교 교수)

<論介 事蹟 年代表>

* 義岩 朱論介 事蹟 調査 報告書 (長水 繁榮會 1985)와 論介 事蹟의 歷史的 意味(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참조

新安朱氏 ……朱子(중시조) …… 印長 (高麗 禮部尙書) …… 勝遷 (朝鮮 議政府 右贊成) …… 糸+恭 (右承旨) …… 武賢 (7대조: 金郊察訪) --- 應杓 (6대조: 贈通德郎, 慶尙道 安義縣 西上面 방지리에 이주) …… 麟 (祖父: 장수현 임내면 주촌리에 거주) --- 達文 (父: 書堂 訓長 - 母 密陽朴氏 - 叔父 達武) --- 大龍 (15세에 괴질로 요절), 論介 (1574년, 선조 7년 9월 3일 출생)

- 1574(선조 07) 09.03 出生
- 1587(선조 20) 父親 死亡
- 1588(선조 21) 叔父 達武가 김풍헌의 백치불구 자식의 민며느리로 팔다.
- 1588(선조 21) 長水縣 관아 뜰에서 송사, 縣監 崔慶會를 만남, 관아에서 살게 됨
- 1591(선조 24) 18세 長水 縣監 崔慶會와 結婚
- 1591(선조 24)? 崔慶會가 興德 縣監으로 轉職
- 1592(선조 25) 壬辰 倭亂 일어남 - 崔慶會가 장수에 돌아 와 의병 모집, 전투 - 내조
- 1593(선조 26) 崔慶會를 좇아 晉州城으로 가다가 山淸에서 왜적에 붙들려 威安郡 양곡면까지 끌려감 - 黃進에게 구출됨
- 1593(선조 26) 06.18 왜군 20만, 晉州城 포위 공격
- 1593(선조 26) 06.28 黃進 戰死
- 1593(선조 26) 06.29 晉州城 陷落
- 1593(선조 26) 07.07 蠡石樓 앞 바위에서 倭將 毛谷村六助를 안고 남강에 투신
- 1620(광해 12) 晉州 兵使 南德夏의 狀啓에 의하여 旌閭
- 1621(광해 13) 봄 旌閭 設立 - 義妓論介之門 (庚申秋回使南公德夏狀聞特命旌表辛酉春鐫建)
- 1722(경종 02) 04. 義岩事蹟碑(銘) 建立 - 柳於于夢寅野談曰 論介者 晉州官妓 當萬曆癸巳之歲 金千鎰倡義之師 入於晉州以抗倭 及城陷軍散 人民俱死 論介癡粧靚服 立于蠡石樓下峭岩之前 其下萬丈 直入波心 羣倭見而悅之 皆莫敢近 獨一倭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以誘而引上 論介遂抱持其倭 直投于潭俱死 壬辰之亂 官妓之遇倭不見辱而死者 不可勝記 非止一論介 而多失其名 彼官妓皆淫娼也 不可以貞烈 稱而視死如歸 不汚於賊渠 亦聖化中一物 不忍背國 從賊無他 忠而奇猗 與欠哀哉云 此出於當時實錄 則今於此碑之辭 不必爲疊床之語 故仍以刻之 係之以銘 銘曰 獨峭其岩 特立其女 女非斯岩焉得死所 岩非斯女 焉帶義聲 一江孤岩 萬古芳名 崇禎後九十五年壬寅四月日立
- 1824(순조 24) 義娘祠 建立 - 축석루 경내 서편 (指水門 懸板: 義娘祠 萬曆癸巳後二百三拾三年甲申 觀察使李止淵書)
- 1846(헌종 12) 豎名碑 建立 - 장수 현감 鄭胄錫 - 獄거리 (현 장수리 277번지) - 蠡石義妓生長鄉豎名碑 -- 疾風板蕩 不句不易 烈士所難 而一女子 辨別大義 視死如歸 何其烈也 想像當日 凜然烈氣 炳如日星 何其壯也 山有靈芝 水有醴泉 君子稱尚 況人之名 節源於天性 布人之耳目者乎 熄余六旬腐儒 終无成己之功 每於如斯人 豐功義烈 艷服起敬 尋常感恨无 今於義妓豎名傳 後以生平 移走下風 願謹以書記識 --- 崇禎紀元四丙午季秋上瀚 知縣西原鄭胄錫謹識 子幼學基永謹書 碑有司密城朴吉仁
- 1942. 11. 하순? 豎名碑를 물레 파문음 - 이재영 등 5인 - 침략자 일본의 지시로 파괴하게 된 것을
- 1945. 08. 20 豎名碑를 파냄 - 장수국민학교 학생들
- 1945. 08. 21 豎名碑를 세움 - 장수리 19번 국도변
- 1945. 08. 22 豎名碑 碑閣을 세움
- 1950 義娘祠 燒失 - 6.25 전쟁 중
- 1950 蠡石樓 全域 火災 - 義妓之門은 無事

| | |
|--------------|---|
| 1954. 03 | 義岩祠 건립 추진 발기회 소집 |
| 1954. 10. 19 | 의암사 신축 공사 시작 |
| 1954. 10 | 장수의암사적보존기성회 발족 |
| 1956. 10. 03 | 의암사 준공 |
| 1960. 12. | 義岩朱論介娘生長鄉事蹟不忘碑(閣) 건립 - 溪內面 大谷里 朱村 입구 - 賊將이 立花宗茂로 잘못 기록됨 |
| 1960 | 義娘祠 改築 - 진주고적보존회 - 義妓祠로 改稱 |
| 1972. 02. | 소설 논개 파문 |
| 1972. 03. 하순 | 의암 묘소 발견 작업 - 삼허 吳治湟 - 慶尙南道 咸陽郡 西上面 芳池里 일대 수소문 |
| 1972. 04. | 의암 묘소 발견 작업 - 함양군 서상면 방지리 일대 현지 답사 |
| 1972. 09-10 | 의암 묘소 발견 작업 - 함양군 서상면 방지리 일대 5회 답사 |
| 1973-75 | 의암 묘소 발견 작업 - 14-15회 답사 - 묘소 발견 |
| 1974. 11. 23 | 의암사 이전 준공 - 장수읍 두산리 산3번지 |
| 1975. | 의암 묘소 발견 작업 - 화순, 진주 등지의 사적 고증과 거리 추정 등을 고려하여 이상이 없음을 단정 - 묘소 이장 계획을 군 당국에 제출 |
| 1976. | 의암 묘소 이전 승인 신청 - 장수군이 문공부에 - 경상남도에서 현지 묘소 성역화 사업 - 문공부에 신청 확정 발표 |
| 1980. 09. | 義岩朱論介像 건립 |
| 1980? | 論介의 碑 - 축석루 서편 義妓祠 庭園 - 진주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세움 |
| 1980? | 義岩朱論介遺墟碑 - 주촌국민학교 북편 정원 - 논개의 생가 터 |

<論介에 관한 그 밖의 여러 記錄>

- 大東奇聞 卷二 宣祖朝 五十三 “論介抱將於峭岩” --- 牧使徐禮元 倡義使金千鎰 所領兵幾至六萬 比前十位 人皆謂守成無慮 論介獨憂 千鎰問其申前則 兵雖少 將相愛号出一 此爲得勝立本 今雖兵多 軍無統率 將不知兵 是爲憂 千鎰以爲妖言欲斬 左右勸解得止 及城陷 軍民將校 盡被屠戮 論介凝粧盛服 立蠡石樓下峭岩之巔 敵將見而狎之 論介抱腰投潭 後日名其岩曰 義妓岩 立祠樓傍 每年春秋 羣妓會集而祀之
- 湖南誌 忠義章 --- 長水論介 本縣官妓 晉州兵使崔慶會之所愛也 壬亂隨崔公殉節 敵設安于蠡石樓 論往挑其歡 乘彼醉昏 抱投樓下南江而死 建祠命旌 自官每年致祭
- 湖南邑誌 (1872; 고종 09) 長水縣邑誌 乾卷 節義章 --- 義妓論介 任內面楓川人 忠毅崔公莅本縣時所昞也 崔公 晉州兵使 當壬辰之亂 論介隨欵 及城陷 盛粧奩誘敵將 對舞於南江危岩之上 因以同墜而死 後人鐫岩曰 義妓岩 立祠江上祭之
- 東鑑綱目 第十八下 癸巳章 --- 倭陷晉州 兵使崔慶會 倡義使金千鎰 復讐將高從厚死之 忠清兵使黃進 牧使張潤 崔慶會愛妾論介 抱投倭將南江而死 忠烈之女也
- 月岡祠 實錄 --- 忠毅公日休堂崔先事蹟實錄 --- 昔在壬辰 公募聚義旅轉 鬪于錦山茂州全州南原 有連捷支+反逐 進兵過長水 長水會以遺愛之 民牛酒仰勞 足+名過蠡石義妓生長村 楓川而義妓論介
- 湖南節義錄 (1800; 순조 즉위) 권1, 33表 --- “기생 논개는 장수 사람인데, 최경희가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따라 진주로 갔다.”
- 湖南三綱錄 (1839; 헌종 05) 권1, 忠臣蒙褒篇 --- “논개는 장수의 관기인데, 진주 병사 최경희가 사랑하였다.”

* 萬姓大同譜에는 新安朱氏가 보이지 않고 全州朱氏 · 綾城朱氏 · 熊川朱氏만 나와 있다.

* 百氏通譜에는 婺源朱氏가 나와 있으나 위의 사적 보고서 등에 보이는 논개의 가계는 나와 있지 않다. (新安과婺源은 다 같이 中國 安徽省 徽州府 歙縣의 縣이다.)

